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15 The Wizard of OZ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015. 4. 11 (토) am 11:00 pm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K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에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권 20%할인
티켓링크 [ticketlink](http://ticketlink.com) 1588-7890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APRIL vol.280

April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5 04 vol.280



Cover Story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범수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자그마하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청지기 교회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승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CD WORLD CLASSIC DISCOVERY

2015
WORLD
CLASSIC
DISCOVERY



마에스트로 **오승근**과
은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seun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디스커버리 음악

예술감독 : 오승근 |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 협연 : 황지원 (바이올린), 신민원 (소프라노) | 해설 : 류태형

1월 24일 [러시아] 4월 25일 [프랑스] 6월 13일 [아메리카대륙] / 7월 25일 [독일] / 10월 24일 [오스트리아] / 12월 26일 [이탈리아]

토요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클래식과 다이아몬드의 행운을 함께!

- 매회 공연시 추첨
- 굿모닝백이안과 - VIP 눈건강 검진권
-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루메니스2 또는 BBL+레블라이트
- 에어부산 - 부산/김포 왕복 항공권
- 해운대 그랜드호텔 - 디너 식사권
- 1회~6회 모든 관람객 중 추첨
- 갤러리젬 - 1캐럿 다이아몬드
-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VIP라식 또는 라섹시술권
-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 듀얼프락셀 또는 아이콘시술권

티켓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문의 | BSO 051-621-4577 www.bso21.com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후원 102 굿모닝백이안과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의원 GALLERY Jem HAEUNDAE GRAND HOTEL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Program

- 지아코모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 "이런 미인 본적 없어"
- 프란체스코 칠레아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로르' /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 조르주 비제 오페라 '카르멘' / "내가 던진 이 꽃은"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체칠리에"
- 지아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 "내 이름은 미미"
- 샤를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요"
- 프란츠 레하르 / "미소의 땅"
- 피에트로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인테르메조"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 "봄의 제전"



지휘 리 신차오 | Li Xincao

Igor Stravinsky
이 고 르 스트 라 빈 스 키

봄의 제전 LE SACRE DU PRINTEMPS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김지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509th Regular Concert



2015. 4. 15(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교향악단 문의 051-607-3106(홍보팀), 051-607-3144(공연운영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입장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 ~ 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The 40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부산신포니에타

M. The Miracle

기 | 적 | 을
연 | 주 | 하 | 다

PROGRAM F. Mendelssohn Symphony No.10
W. A. Mozart Violin Concerto No.5 A Major
D. Shostakovich Sinfonia for String Orchestra

2015. 4. 9 (목) 저녁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바이올린 김재원

지휘 서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2천원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문의 051)220-5812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무대감독 이순재 조명감독 박병주 음향감독 신경범

을숙도명품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Sum&Fun
Haeundae 특별기획공연

THE WORLD OF DREAMS

캐네디언 재즈 퀸텟 with 장사익

2015. 5. 20.(수) 오후 7시30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Vocal 장사익 • Guitar 정재열 • Saxophone Kirk MacDonald • Piano Brian Dickinson
• C. Bass Mike Downes • Drums Ben Ball • 해금 하고은

주최 Haeundae 해운대문화회관 예매 인터파크 문의 051) 749-7651
티켓 VIP 7만원, R석(1층) 6만원, S석(1층) 5만원, A석(2층) 3만원, B석(2층) 2만원
*누림회원 · 초 · 중 · 고 · 단체 30명이상(30%), 장애인 · 국가유공자(50% / 1인 2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2015 더클래식경남 The Classic Gyeongnam



| PROGRAM |

엘가 · 위풍당당 행진곡 작품39 / 브루흐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작품26
무디 · 폴레도 / 푸치니 ·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떤 갠 날> 외 수 곡.



하모니카 박종성
Harmonica Jong-Seong Park



바이올린 김지연
Violin Chee-Yun Kim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테너 신동원
Tenor Dong-Won Shin



소프라노 김유섬
Soprano Yoo-Sum Kim

2015. 5. 21(목) 7:30 pm
거제 거제문화예술회관

2015. 5. 22(금) 7:30 pm
창원 성산아트홀

2015. 5. 23(토) 7:30 pm
부산 부산문화회관

| 주 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 주 관 | KNN | 후 원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창원시 | 거제시 | 특별후원 | 넥센일석문화재단



| 문 의 | 055-283-0504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C o n t e n t s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10 공연일정
- 12 반갑습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입 수석지휘자 김범수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또 다른 중국을 만나는 오지여행,
구이저우성(贵州省)!! 허정애
- 18 불멸의 거장_박목월②
청록파와 박목월 장윤익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자그마하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교회
- 청지기 교회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유엔평화기념관
- 24 우리는 문화가족
비주류사진관
- 26 테마가 있는 여행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Boards Inside⁺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56 새로 나온 책
- 57 새로 나온 음반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2 부산문화회관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5년 4월호 통권 280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 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5년 3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4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1956년 창단된 후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온 KBS교향악단이 4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초청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초대 상임지휘자 임원식을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상임지휘를 맡으며 국내 정상의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한 KBS교향악단은 지난 2012년 9월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지휘자 요엘 레비가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더욱 폭넓은 연주 활동과 안정적인 앙상블, 깊이 있는 사운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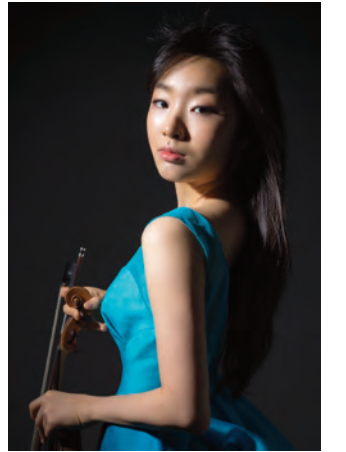
정통 클래식 음악회로, 매년 20회 이상 열리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특별연주회, 기업음악회, 어린이음악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 100여 회가 넘는 기획공연들을 진행하고 있는 KBS교향악단은 교향곡에서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음악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백건우, 조수미, 장영주, 장한나, 정명화 등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뿐 아니라 미샤 마이스키, 피터 야블론스키, 로스 로메로스 등 세계 정상급 솔리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교향악단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친 KBS교향악단은 1979년 미국 전역 순회연주를 시작으로 동남아 5개국 순회연주, 일본 6개 도시 순

회연주, NHK초청 일본 4개 도시 순회연주, 일본 기타큐슈 국제음악제, 히로시마 교향악단과의 UN 창설 50주년 및 광복 50주년 기념 뉴욕 UN총회장 연주회, 2002년 차이나 필과의 서울, 베이징, 상하이 교환연주회, 2013년 중국국가교향악단 특별합동연주회 등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 한국 교향악단의 대외 이미지를 고양시켜왔다. 지난 2000년 8월에는 남북평화 사절단으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서울에서 역사적인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가진데 이어 2002년 9월 평양에서 두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번 부산무대는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명예지휘자,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부감독으로 있는 객원지휘자 발터 벨러와 함께 부산을 찾는다. 협연자로는 4살의 어린 나이로 빈 국립음대에 최연소 입학, '천재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가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레퍼토리는 스페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나단조 작품 61',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음악감독, 바젤극장 종합 음악감독, 로열 스코틀랜드 국립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발터 벨러는 1966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로 데뷔무대를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가진 후 빈 슈타츠오페라(국립 오페라극장), 런던 심포니, BBC 심포니,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등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이태리 Andrea Postacini, Sanbartolemeo, STRESA 국제콩쿠르 1위, 오스트리아 Prima la Musica 국제콩쿠르 3회 연속 1위 및 우승, 오스트리아 Fidelio 콩쿠르 2회 우승 등 대부분의 콩쿠르에서 최연소 나이로 심사위원 전원 만점을 수상한 김윤희는 지난 1996년 5살 때 가진 헝가리 사바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트론히임 왕립오케스트라(13세), 스페인 국립방송오케스트라(14세),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15세), 몬테카를로 필하모닉(16세), KBS교향악단(17세)과 최연소 협연무대를 가지면서 '최연소'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 프로그램은 KBS교향악단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2015 / APRIL

CULTURAL SCHEDULE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누리에 '사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누리에 '사초'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8회 부산시민연극제 15:00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8회 부산시민연극제 14:00 부산연극협회(645-3759)</p>
5	6	7	8	9	10	11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7:00 2만원·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8회 부산시민연극제 14:00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9:30 2만원·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더블스테이지 '별 헤는 밤'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19:30 2만원·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더블스테이지 '별 헤는 밤'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19:3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대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1:00, 15:00 2만원·1만 5천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p>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맥 '임진왜란' 17:0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17:0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12	13	14	15	16	17	18
<p>중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맥 '임진왜란' 17:00 2만원·1만 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p> <p>소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10:30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p>	<p>대 테너 조윤환 독창회 '달빛이 흐르는 전경' 20:00 5만원·2만원·1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중 제4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중 독일가곡연구회 제46회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 독일가곡연구회(010-2692-6856)</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봄의 제전' 19:30 2만원·1만 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54)</p> <p>중 동아대학교 피아노 동문음악회 '비상' 19:30 초대 동아피아노포르테(010-2333-2544)</p> <p>소 극단 키즈샘 '백조왕자와 엘리제 공주' 10:15, 11:20 균일 5천원 극단 키즈샘(02-6409-6593)</p>	<p>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함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19:30 균일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47)</p> <p>중 소프라노 구민영 독창회 19:30 균일 2만원/구민영(010-2460-2450)</p> <p>소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15:30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p>	<p>소 토마스 쿡, 주윤하 'Good Trip' 20:00 균일 5만원/Good Trip2015(@juyoonha, facebook.com/juyoonha)</p>	<p>대 톤인프리윈드오케스트라 '부산시민을 위한 관악의 대항연' 19:30 1만원, 5천원 톤인프리윈드오케스트라(010-8503-0000)</p> <p>중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정기연주회 16:00, 19:30 균일 1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70-8265-0776)</p> <p>소 토요일상설무대-한국국악협회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19	20	21	22	23	24	25
<p>중 박주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박주영(010-8667-0562)</p> <p>소 남동우 클래식기타 독주회 17:00 초대/We Music (365-0033, 010-6416-5482)</p>		<p>대 아나첵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프라하의 봄' 19:30 5만원·4만원·3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중 제26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19:30 초대/임병원(010-4909-7444)</p>	<p>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봄 19:30 우리아트(920-9545)</p> <p>중 윤진아 오보에 리사이틀 19:30 윤진아(010-6329-7931)</p>	<p>대 정상급 성악가 초청 '신작 가곡의 밤' 19:30 초대/부산가곡사랑모임(010-3567-3723)</p>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43)</p> <p>소 레이비앙상블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 레이비앙상블(010-9841-1006)</p>	<p>중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 아미티에 성악연구회(010-7767-4390)</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프랑스' 11:00 3만원, 2만원, 1만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p> <p>중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컨페디션 10:00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Open Strings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p>
26	27	28	29	30	<p>부산문화회관-대전시실 4월 13(월)-4월 19일(일) / 김명수 010-4138-4847</p> <p>감성의 소통전-중전시실 4월 13(월)-4월 19일(일) / 김명수 010-4138-4847</p> <p>제3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상전-대·중전시실 4월 24(금)-4월 26일(일) / 박효덕 701-5950, 010-6269-7456</p> <p>제23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대전시실 4월 30(목)-5월 2일(토) / 사무국장 장오중 010-9775-5151</p>	
		<p>소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10:30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 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9:30 3만원·2만원·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p>			

〈예술에의 초대〉는 Caffé Bene 카페베네 부산시 전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 대극장 **중** 중극장 **소** 소극장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범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인이 되어 부산을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단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의 지휘자 김범수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부산 음악계와 인연을 맺었다.

● 초등학교 4학년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의 권유로 바이올린을 시작한 김범수 지휘자는 경북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슈만 음대(Diplom)와 에센 폴크방 음대(KammerExamen)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 재학 시 계명대학교 콩쿠르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콩쿠르에서 각각 1위에 입상하였고, 대학 재학 시 경북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차세대 연주자로 두각을 보였다. 유학 중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Rudolf Koelman 교수와 Vladimir Mendelssohn 교수를 사사한 김범수는 Schmolz-Bickenbach 실내악 콩쿠르에서 준우승하며 수차례 솔로연주와 실내악 연주자로도 바쁘게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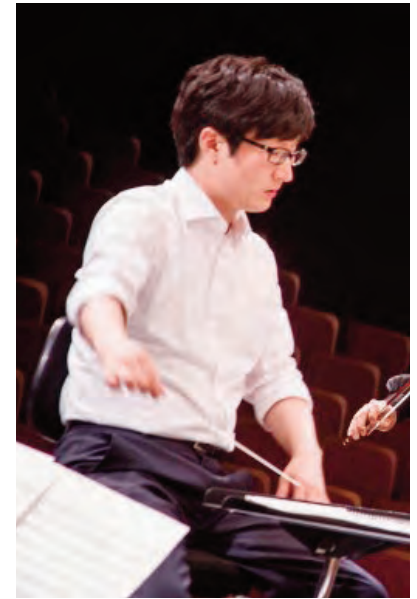
바이올린 주자에서 지휘자로 선회한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유학 중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지나치게 연습에 매진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 진단 결과 1년간 어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1년이란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던 김범수는 잠시(?) '지휘공부'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

“바이올린은 혼자만의 연습이 제일 중요한 장르였지만 지휘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함께하는 공부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였던 만큼 지휘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나게 되고 성격 또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휘공부를 하면서 어깨 치료를 마쳤지만 지휘의 매력을 떨칠 수 없어 4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이동하며 지휘수업을 계속한 김범수 지휘자는 2008년 에센 폴크방 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에 입학하여 David de Villiers 교수로부터 오페라 지휘법을 수학하였다. 2011년 귀국한 후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포항시립교향악단, 대구스트링스 오케스트라, 대구국제오페라 오케스트라, 대전안디무지크 필하모니아, 대구MBC교향악단에서 객원지휘자로 연주하며 지휘자로 입지를 굳혀왔다. 현재 아르도르 필하모니아 지휘자, 경북대학교에서 음악과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귀국할 당시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열정만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우리 음악계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주기회가 많아졌죠.”

김범수는 지휘자로서의 활동 외에 음악의 길을 열어준 바이올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주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년간의 유학생생활에서 얻은 해박한 지식으로 2013년부터 2년간 대구 KBS 라디오 클래식 방송 '노래의 날개 위에'



김범수의 'The Classic' 진행자로 클래식 애청자와 함께 교감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 창단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연주단체인 만큼 신임 수석지휘자로서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좋은 활동을 이어온 만큼 김범수 지휘자는 차세대 유망주들에게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경험과 비전을 제시하고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연주자로서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단원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단원들과 소통하며 좋은 무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 지휘자는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레퍼토리에 충실할 계획이다. 또 부산의 청소년, 유아들을 위한 클래식 프로젝트, 성인 교향악단에서 쉽게 할수 없는 기획 이벤트 무대도 구상 중이다.

음악만 생각하고 달려온 탓에 그의 외모는 나이를 예측할 수 없는 동안이다. 내년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불혹. 새봄 부산에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하는 김범수 지휘자의 의욕적인 행보,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또 다른 중국을 만나는 오지여행 구이저우성(贵州省)!!

글 허정애 중국 통신원 · 베이징 온바오 팀장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땅 구이저우성, 이름(貴)과는 정반대로 가장 귀하지 않은 땅 구이저우(貴州). 하늘에는 삼일간 맑은 날이 없고, 땅에는 평평한 땅이 세 평을 넘지 못하고, 사람에게겐 돈이 삼푼도 없다(天無三日晴, 地無三尺平, 人無三分銀)는 곳 구이저우성. 이 생소한 지역명보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중국의 명주 마오타이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면 이해가 더 빠르겠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제(한국의 설날과 같음) 기간은 열흘 정도의 황금휴가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인들이 모이는 배낭여행팀에 합류해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이 모여 살며 이들이 사는 부락 자체가 생태박물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이저우로 떠났다. 일정은 6박 7일. 공항이 위치한 도시 구이양(貴陽). 햇빛 보기가 귀하다 해서 '구이양'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도착한 첫날 이후부터 계속 흐린 날이다. 여행 이틀째부터는 평지가 해발 200m부터 1,000m의 산지마을들이니 종일 보슬비가 오다 걷히기를 반복하면서 안개가 깔리면 신비로움까지 생긴다.

생태박물관으로 유명한 탕안과 가장 큰 규모의 동족(侗族)부락인 자오쑹, 중국 내 유일하게 총기 소지허가가 되는 바샤(巴沙)로 이어지면 마치 몇백 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바샤 마을의 주민은 소수민족 마오족(苗族)이다. 수풀 무성한 깊은 삼림 속에 있으며 1,000여 년 이상 매우 은폐된 생활을 해와서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이다. 장년의 남자들은 몸에 칼을 차고 화약총을 어깨에 메고 있어 고대 무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바샤의 남자는 낮으로 머리를 미는 의식을 치르면 비로소 성인이 된다. 바샤 여자들도 옛 자수 문양의 아름다운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데, 은으로 된 목걸이, 팔찌 등으로 한껏 장식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바샤 마오족의 머리 위 상투는 나무를 상징하며 입고 있는 푸른 천의 옷도 아름다운 나무껍질을 상징한다고 한다. '바샤'는 원래 '풀과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바샤인들에게 나무는 바로 생명이며, 조상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구이양에서 동쪽으로 3시간 30분 거리의 카이리(凱里) 시 인근 레이산 현(雷山縣)에는 바라(巴拉) 강을 따라 마오족 마을 7개가 들어선 랑더 마오 마을(廊德苗寨)이 있다. 비탈에 층층이 있는 작은 논과 밭, 지대가 높은 곳에 들어선 2~3층 높이의 목조 가옥 등 한적한 풍경이 그대로 간직된 곳이다. 마을로 들어서면 은장식 투구와

장신구가 화려한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남자들은 로笙(芦笙, 생황)이란 목관 악기를 불며 손님들을 맞는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시장(西江)에 있는 '천호묘寨(千戶苗寨)', '천 채의 마오족 건물'이라는 뜻으로, 우선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질서 있게 늘어서 있는 민간 목재 누각들이다. 전망대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멀리까지 바라다볼 수 있다. 밤에는 쏟아질 듯한 별빛을 볼 수 있다. 기대를 많이 한 곳이었는데, 여행 초반 원시적인 소수민족 부락들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감흥은 크지 않았다.

여행이 슬슬 지루해지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하루를 보낸 쩐위안 고성에서 우리는 구이저우 여행의 멋진 마무리를 하게 됐다. 쩐위안은 약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성으로 이미 중국에서도 이름난 고성 중 하나이다. 고성의 중심에 우양허(舞阳河)변을 따라 지어진 수로 형태의 건물 양식이 다른 남방 건물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곳의 건물들은 외관상으로는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강변을 따라 유람선도 탈 수 있다.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이니 중국 어느 도시에서나 터지고 있는 폭죽을 이곳 우양허에서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소원을 비는 공명등을 띄우는 모습도 멋진 야경에 한 몫을 더한다.

이 지역 음식은 전반적으로 짭짤하고 기름기가 많다. 유채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식용 기름은 대부분 유채 기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마오족의 음식은 신맛이 특징이다. 토마토, 레몬, 생강, 죽순으로 국물을 만들고, 여기에 생선을 넣어 만든 '수안탕위(酸湯魚)'가 대표적인데, 시고 얼큰한 매운탕 같은 요리이다. 한국의 매운탕 맛에 신맛이 강한데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메뉴이다. 그리고 다양한 쌀국수는 거리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천호묘寨의 가장 변화한 상가거리



쩐위안고성의 관광객들이 우양허를 따라 유람선을 타고 있다.



가는 마을마다 한국의 정자같은 역할을 하는 고루가 있다.



거리 곳곳에서 먹을 수 있는 쌀국수



소수민족 동족 할머니들의 환한 미소

수 있어 간단하게 요기하기 좋다. 특히 이곳에는 두부와 콩나물, 감자가 너무 맛있다. 식당마다 직접 재배한 것을 바로 요리에 사용하는지 신선함이 살아있다. 주로 이 음식으로 여행 끝날 때까지 버텼더니 의도하지 않은 다이어트가 되었다.

한편 '안순(安顺)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면 개가 도망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순 지역 주민과 부이족은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부이족(布依族)은 명절이나 귀한 손님이 오면 맑게 끓인 개고기를 대접한다. 안순의 길거리에는 거우러우(狗肉·개고기)라는 간판을 단 음식점도 많다. 이들은 찹쌀로 만든 떡인 '츠바'와 찹쌀밥도 만들어 먹는다.

구이저우는 세계적인 명주인 알코올 도수 53%의 마오타이가 생산되는 곳이다. 북부 마오타이진(茅臺鎮) 준이(遵義)의 물과 수수로 만들어 마오타이로 불린다. 단오~중양절 기간에 빛는데 아홉 번의 증류와 배합 과정을 거친 후 질항아리에서 3~5년간 숙성시켜 완성한다. 그러나 마오타이 향기의 비밀은 마오타이진의 공기에 있다고 한다. 그곳의 물과 수수를 가져다 다른 곳에서 만들면 결코 같은 맛과 향기가 나지 않는다. 마오타이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고 몸에서 술 향기가 나는 술로 이름 높다. 세계 3대 명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가격은 오래될수록 비싸다.



청록파와 박목월

세칭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은 1939년 같은 시기 <문장>지를 통해 등단한 시인들이다. 그들의 시는 해방 전에도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한국문단에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은 해방 후 좌·우익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한 시기에 나온 3인 공동시집 <청록집(靑鹿集)>(1946)이다.

글 장윤의 동리목월문학관장 · 문학평론가



머언 산 靑雲寺 낡은 기와집
山은 靑霞山 봄 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
靑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청노루’ 전문)

<청록집>의 시집 이름은 박목월의 시 ‘청노루’에서 딴 것이다. 청록은 세 시인의 시의 경향을 잘 집약한 적절한 시집명으로 여겨진다. 박목월의 ‘청노루’, ‘산도화’, 박두진의 ‘청산도’, ‘해’, 조지훈의 ‘풀잎단장’ 등은 모두 같은 성격의 시들이다.

정지용 시인은 1939년 박목월이 등단한 <문장>지 추천사에서 “북에는 소월이 있고, 남에는 목월이 있었거니”라는 말로 민족의 정서와 연계되어 있는 박목월 시의 시 세계를 잘 지적해 주었다.

이 짧은 시는 언제 읽어도 마음에 충격을 준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압축의 미와 토착적인 정서, 민요의 가락이 이 시의 매력이다. ‘청노루’는 청록파 시인의 시집 <청록집(靑鹿集)>의 성격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맑고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순수한 정서로 창작된 작품들이 <청록집>의 시편들이다. ‘청록’을 비롯한 시의 대상들은 곧 ‘청록파’ 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동일성과 투사(投射)의 감정이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편들이다. 이것은 민족정서와도 관련된 시적 승화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수시의 지향이 청록파의 시적 대상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청록파 시인들의 새로운 자연의 발견과 시사적(詩史的) 의의에 대한 정한모(鄭漢模) 시인의 지적은 청록파의 성격을 잘 진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록파’의 공통된 작업으로 발간한 배경은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록파’가 발견한 자연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고향과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시로써 하나의 아름다운 고향을 마련해 준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 때까지 있었던 시사적(詩史的) 여러 갈래 흐름 속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면서 하나의 시사적 청산을 해준 점이다. 특히 해방 이후 6·25 동란까지 우리 시의 혼미와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정치문학과 대결하면서 시정신을 곳곳하게 지키고 시의 정도(正道)를 걸어 왔던 것이다. 청록파가 잃어버린 우리의 감수성을 회복하고 문학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자기인식을 드높인 점은 청록파의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정한모 <현대시론>(보성문화사, 1982, 서울), 206~208쪽]

<청록집>은 향토적 서정과 자연의 조화로 시의 순수성을 새로운 감수성으로 개척하여 한국문학사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청록파’라는 한 유파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1 청록집
2 1949년 남해여행 중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목월은 김영랑과 정지용 등이 30년대 의 시 동인지 <시문학(詩文學)>을 통해서 이룩한 시의 순수성과 김소월이 우리의 전통운율 및 민족정서로 엮은 시를 창작한다. 그리하여 자연시(自然詩)의 특성을 심화·발전시킨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순수하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라 ‘시문학파’의 순수시 옹호는 섬세한 정서로 표현되는 청신한 감각을 중요한 시적 요소로 표출한다. ‘기교파’와 ‘이미지파’로 불리던 시문학과 시인들은 주옥같은 언어의 조탁을 통해서 참신한 미적 감수성을 자연의 발굴로 형상화한다. 박목월의 자연관은 시문학파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순수성과 우리 것이라는 인식에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청노루’는 정지용이 시도하던 묘사의 기법을 한층 더 발전시킨 이미지즘의 시이다. 청노루는 관념과 감정이 배제된 서정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의 형상적인 비인간화의 모습이다. 순수성을 대변하는 자연으로서의 ‘청노루’는 시적 요소들을 자연 속에 몰입시켜 원형적인 고향을 찾아가게 한다. 이러한 ‘청노루’의 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형상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미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박목월의 시는 청록파의 시인들과 문학 교류를 가지면서 민요의 가락과 향토적 서정을 기반으로 한 초기 시를 전개한다.

자그마하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교회

- 청지기 교회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제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청지기 교회는 신도수가 2백 명 정도의 작은 교회이다.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전 청지기 교회는 금사동의 조그마한 건물에 세 들어 있었다. 건물주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건물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 건물에서 떠나 새로운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는 회동동의 새롭게 조성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로 옮겨 가게 되었다. 회동동은 조선시대에는 동래군 동상면(東上面)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금천 및 사천마을을 병합하여 금사리라 하였고, 동래부 동래읍에 편입되었을 때 회천(回川)과 동대(東臺)마을을 합하여 회동리라 하였다. 동대마을, 회동마을 등의 자연마을과 개좌골, 개좌고개, 회천, 오륜대저수지 등이 있으며, 지명은 동대마을의 경우 마을에 동대(東臺)가 있다는 데서 유래하였고, 회동마을은 회천마을과 동대마을이 1914년 통합되었을 때 각각 첫 글자를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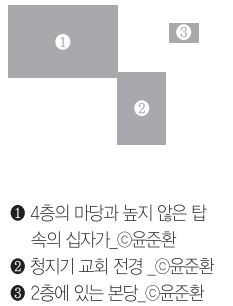
작은 교회의 소박함

교회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불교의 사찰, 가톨릭의 성당과 함께 한국 종교 건축의 근간을 이룬다. '퀴바디스'란 영화가 있다. 수십만의 신도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그마한 교회의 신자들까지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며 날로 대형화 되어가는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건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반면 청지기 교회는 조그마하다. 200평이 조금 넘는 대지에 4층의 규모로 연면적은 400평이 채 되지 않는다. 좁은 대지의 조건으로 1층은 주차장이, 2층은 신자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으로, 3층은 식당, 사역실과 새신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4층은 목사님의 사택과 조그마한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색의 외관과 높지 않은 탑 속의 십자가는 작은 교회의 소박함이 와 닿는다.

교회 건축에서의 정화 공간

설계자인 김덕모, 강민주²⁾ 건축가는 “종교 공간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신과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이며, 이 공간에서는 세속의 삶에서 정화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교회 건축에서의 정화 공간을 말하고 있

다. 많은 공장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목적성의 산업단지와 교회 건축이라는 부합되기 어려운 공간 사이에서 설계자로서의 고민이 적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1981년 건축가 김수근³⁾이 설계한 서울 장충동의 경동교회는 도심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도시의 큰 길로부터 반대되는 곳에 주출입구를 두고 있다. 도시의 큰 도로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 외벽을 빙 둘러 들어와야 한다.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길목으로부터는 좌우 양면에 수많은 계단이 이어지는데 이는 예수가 최후의 순간 골고다로 향해 걸었던 길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국전통사찰의 진입공간을 은유하기도 한다. 경동교회는 걸으로는 굉장히 과묵하고 약간 돌아선 것 같은 배타적인 모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를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공간을 배려하고 또 혼란스러운 도시풍경에서 굉장히 정제된 건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① 4층의 마당과 높지 않은 탑 속의 십자가. ©윤준환
- ② 청지기 교회 전경. ©윤준환
- ③ 2층에 있는 본당. ©윤준환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교회

청지기 교회 또한 혼란스러운 산업단지를 앞으로 하고 있지만 본당의 주출입구는 경동교회와 유사하게 산업 단지의 도로의 반대 측에 나 있으며,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원과 면하고 있는 외부공간을 이용하게 되고, 서서히 오르며 마음을 정화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이 계단은 정화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원과 접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신도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공간의 배치는 본당의 홀이 건물의 뒤쪽으로 놓이게 되어 계단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게 되었고, 진입에서 계단을 거쳐 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홀이 남향으로 향할 수 있게 되고, 넓은 창을 통한 충분한 채광과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된다.

새롭게 들어서는 교회의 대다수가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그마하지만 정갈하고 소박한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교회가 아닐까?

1) 퀴바디스(QUO VADIS) 감독 김재환, 2014년 개봉

2) 김덕모/강민주

부부 건축가로 이들은 프랑스 파리 라빌레트 국립건축학교를 졸업하였고,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자격과 한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프랑스의 아르쉬텍튀르 스푸디오와 장-베에르 뷔피사무실에서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2002년에 건축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및 조형 디자인 C.I. 등의 토털디자인을 목표로 Atelier Eidos를 설립하였고, 현재 I주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및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들의 대표작으로는 현상설계 당선작 인천항만 교통정보센터와 국제여행객선 New Golden Bridge II호, New Golden Bridge V호, C-K Star 등의 선박공간 디자인과 I주스틸플라워 사옥 인테리어, 금정 경문장 현대화 프로젝트, 부산국제영화제 JTI Smoking Lounge, 해운대 솔밭예술마을, 해운대 행복나눔센터 등이 있다.

3) 김수근(1931~1986)

서울에서 태어났다. 195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 건축과 2년 중퇴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58년 도쿄예술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60년 3월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귀국, 김수근건축연구소를 열고 1972년까지 대표를 지냈다. 그 사이 1961년~1968년 홍익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다. 1966년 종합예술자인 <월간 공간(空間)>을 창간하였고, 1971년 그의 사무소 사육인 '공간'을 건축하여 문화 활동의 장소로 개방하였다. 대표 작품에는 자유센터, 공간 사육, 올림픽 주경기장, 마산 양덕성 등이 있다. 한국 현대 건축의 생명을 이루었던 김중업과 더불어 한국 현대 건축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인 <공간 사육>은 경영악화로 2013년 아라리오 갤러리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었고 2014년에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세계평화의 씨앗을 심다 유엔평화기념관



세계 유일의 성소(聖所)인 유엔기념공원이 있어 유엔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대연동에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또 다른 씨앗이 싹을 틔웠다. 세계 최초 유엔기념관인 유엔평화기념관이 바로 그곳으로, 지난해 11월 문을 연 후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제적인 복합문화센터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UN기념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UN평화기념관은 연면적 7,999㎡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4D영상관, UN평화센터, 다목적 컨벤션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3개의 상설전시관은 UN한국전쟁관을 비롯해 UN참전기념관과 UN국제평화관. 전시 관람의 첫 출발지인 UN한국전쟁관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확인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진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 3년 1개월이라는 긴박감을 주요 유물과 영상을 통해 전달하는 UN한국전쟁관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한국전쟁 발발, 유엔의 참전 결의와 유엔군 결성, 스미스 부대의 대패와 후퇴, 최후의 사투를 벌인 낙동강 방어전선, 극

적인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탈환, 통일을 향한 북진,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한 흥남철수와 1·4후퇴, 서울 재탈환, 정전협정의 과정 속에 철의 삼각지를 중심으로 고지를 쟁탈하기 위한 치열했던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유엔군이 부산항에 첫발을 내딛었을 당시 1950년 부산항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영화세트처럼 생생하게 꾸며놓은 전투장면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고 전시를 통해 감사를 전하는 UN참전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21개 전투·의료국의 활동상과 국가별 유물 및 기증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UN한국전쟁관

참전국들의 정보와 군가·국가를 들을 수 있는 키오스크,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인터뷰 영상, 전 세계 참전용사들로부터 기증받은 편지와 사진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UN참전기념관 한 칸에는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당시 기별 곳이 없었던 3만 여명 이재민을 위해 군수창고를 열어 천막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등 한국을 사랑했던故 리처드 워트컴 장군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UN국제평화관에서는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엔의 역사와 아직도 분쟁과 내전, 난민 생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참상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유엔과 유엔평화유지군의 활

상작 전시를 만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세계 난민의 날 사진전'과 'Remember The Day-6·25 그 시절 부산'전이 열릴 예정이다.

유엔평화기념관에서는 전시관 운영 외에도 다양한 기념사업과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4월에는 토요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어린이 영어 도슨트'를 운영하며 1기생을 배출한 성인 도슨트는 제2기생을 모집해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5월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어린이 영어 동화연구대회'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개발한 글로벌 인성교육 유아학교 프로그램인 '가족과



UN참전기념관

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가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내용을 패널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UN의 주요기관 검색 키오스크, 유엔의 평화활동을 보여주는 영상, 유엔난민기구와 유니세프 구호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3곳의 상설전시관은 전시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관람객들의 관람편의를 돕고 있다. 유엔 참전국 용사가 구출해준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전달하는 4D영상관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5시 세 차례 운영된다.

1층에 자리한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기획전으로 '모하메드와 함께 떠나는 UN이야기'가 열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모하메드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동화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유엔 산하기관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기획전시관 내 만들기 체험실에서는 조각그림벽화, UN하트퍼즐, 곤충집게액자, 희망나무 목걸이 등 다양한 만들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 기념관 입구 로비에서는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에서 개최한 2014 Focus on Your World 환경사진전 공모전 수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육 -아우아우'가 펼쳐진다.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운영하는 청소년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내의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유엔총회 토론방식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유엔 청소년 모의총회는 7월 열릴 예정이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해설사와 함께 기념관을 둘러보며 국내외 역사를 배우고 전시와 연계한 체험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운영된다.

이밖에도 기념관을 대표할 만한 유물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또는 유물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엔평화기념관 대표유물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 4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유엔평화기념관은 개관 후 지금까지 5천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 앞으로 인근에 조성 중인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완공되면 유엔기념공원을 잇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문의 유엔평화기념관 901-1400, www.unpm.or.kr

!Social docu PHOTO f

사회다큐 사진집단 비주류 사진관

“세상을 바꾸는 건 주류가 아니다.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비주류가 세상을 바꾼다. 비주류는 혁명의 동력이 나오는 근원이다. 비주류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다. 비주류 본능은 내 힘, 내 경쟁력이다. 나는 당당한 비주류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는 그의 저서 '비주류본능'을 통해 비주류를 '세상을 바꾸는 근원이자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 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세상 가장자리로 밀려난 우리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사진을 통해 알리고 기록하는 사회다큐 사진집단 '비주류사진관'은 그 이름 그대로 '당당한 비주류'이다.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주류사진관은 지난해 1월, 전업작가에서부터 일반 아마추어 동호인들까지 다큐사진에 관심을 가져온 전국 사진작가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는 총 126명. 주로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활동상을 공유하는 한편, 사진특강을 겸한 정기모임을 꾸준히 가져오고 있다.

지난해 2월, 결성 후 열린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월로 진행되어온 정기모임에는 비주류사진관과 그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인사들이 사진관을 다녀갔다. 사진비평가이자 부산외국어대 학교 이광수 교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이성철 교수, 사진전문 출판사인 눈빛출판사 이규상 대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 씨가 다양한 주제로 사진특강을 가졌다. 올해에는 지난 3월 14일, 전 한겨레신문 사진기자를 지냈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임종진 씨가 '쓰임의 도구로서의 사진'이라는 주제로 '2015 춘 사진특강'을 가지기도 했다.

“비주류사진관은 권력자들의 강제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힘없는 우리 이웃들의 힘겨운 삶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세상에 알려내기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비주류'를 위한 사진관이죠.”

비주류사진관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모임을 주도해온 정남준 씨는 한마디로 비주류사진관을 '비주류를 위한 비주류의 모임'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있는 '비주류'의 현장 속

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는 '현장사진전'은 비주류사진관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지금까지 비주류사진관이 가져온 현장사진전은 모두 3회. 지난해 8월에는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밀양에서 두 차례 사진전을 가진데 이어 올해 3월 11일에는 철거강행이 진행되고 있는 만덕5지구 재개발현장을 찾아가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재개발지구인 연제구 거제리 남문구 마을에서 '남문구는 그리움이다'라는 현장사진전을 개인적으로 열기도 했던 정남준 씨는 작가들이 선호하는 갤러리 전시보다는 현장사진전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고 싶다.

타 장르와의 교류활동도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 비주류사진관은 지난해 아시아 5개국 창작공연으로 마련됐던 'Asia meets Asia' 공식촬영팀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조선국적을 지녔다라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어온 재일조선인들의 문제를 다룬 김지운 감독의 다큐멘터리 '항로-제주, 조선, 오사카', 창작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의 후원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비주류사진관은 격월로 진행해오던 정기모임을 올해부터는 여유를 가지고 계절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모임이 계속해서 부산에서 열리다보니 아무래도 타 지역에 사는 회원들의 참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올해 기회가 된다면 부산 아닌 타 지역에서 정기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비주류사진관의 올해 가장 큰 목표는 그룹사진전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주류사진관과 뜻을 같이하는 사진애호가라면 사진관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문의_ 비주류사진관(www.facebook.com/group/bijulyu)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옛 절터로 떠난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올해 3월로 벌써 9주년을 맞았다.



남산리 삼층석탑



황룡사지

첫 여행의 설렘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3월이면 테마여행 첫 여행지인 경주로 향했던 정기회원 가족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경주로 답사여행을 떠났다. 올해 경주여행의 테마는 '폐사지(閉寺址)'. 신라 천년의 영화를 뒤로 한 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옛 절터를 찾아 여행의 즐거움을 누렸다.

테마여행이 있던 지난 3월 13일, 때아닌 꽃샘추위로 쌀쌀하던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은 테마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들로 활기를 띠었다. 올해 처음 떠나는 봄나들이에 출발 전부터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다.

1시간 30분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신라 제일의 사찰이었던 황룡사지(皇龍寺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신라사람들' 해설사 최승욱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줄지었다(寺寺星張 塔塔雁行). 이 말은 일연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신라 전성기 때 경주를 표현한 구절인데요, 이번 답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황룡사는 528년 불교가 공인된 후 처음으로 세워진 흥륜사(興輪寺, 535~544년에 조영)에 이어 조영된 신라의 국찰(國刹)로, 규모나 사격(寺格)에 있어서 신라 제일의 사찰이다. 진흥왕에서 선덕여왕까지 신라의 최전성기였던 약 100년 동안 만들어진 사찰로 그 화려했던 옛 모습은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진다. 높이가 80m에 이르렀다는 황룡사 구층목탑은 주변 아홉 오랑캐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수호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탑으로 남아 있는 바닥의 면적만도 한 면의 길이가 22m에 이른다. 우뚝 솟아 경주 시내를 내려보았을 목탑은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전소되기까지 여러 나라의 스님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신라를 찾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보물이었다. 현재는 널찍한 폐허만이 남아 그 웅장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교동마을 근처 식당에서 콩나물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사천왕사지를 시작으로 오후 답사에 나섰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최초로 건립한 쌍탑



가람인 사천왕사지는 현재 금당터와 목탑터, 거북형의 비석 받침대, 당간지주만이 남아 그 흔적을 전해준다. 사천왕사는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명랑법사의 발원으로 세운 사찰로 신라가 부처의 힘으로 당나라의 세력을 막아내고자 세운 호국 사찰이다.

사천왕사지에 이어 도착한 곳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이 동·서로 건립되어 있는 남산리 삼층석탑. 서탑은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세운 전형적인 삼층석탑인데 반해 동탑은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석탑과는 달리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모전 석탑으로, 특이하게도 그 양식이 서로 다르다.

다시 버스를 타고 20여 분간 달려 도착한 곳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감은사지(感恩寺址).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 감은사탑이여. 아! 감은사...'라고 했던 유홍준 교수의 글처럼 회원가족들은 감은사를 바라보며 감은사를 외쳤다.

감은사는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고 난 후,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이곳에 절을 세우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아들인 신문왕이 그 뜻을 좇아 완성한 사찰로, 부왕의 은혜에 감사해 이름을 감은사라 부쳤다고

전해진다. 우뚝 솟은 두 삼층석탑은 만들어진 연대가 확실한 통일신라 초기의 석탑으로, 전체 높이만 13.4m에 이르는 신라 삼층석탑 중 최대 크기이다.

경주 테마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토함산 동남쪽 계곡의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인 장항리사지. 절터에는 국보 제236호로 지정된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慶州 獐項里 西 五層石塔)이 서탑(西塔)으로 남아있으며, 동탑(東塔)은 파괴되어 인근 계곡에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수습하여 모아놓았다. 금당으로 보이는 건물터에 있는 석조불대좌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아랫단은 팔각형으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윗단은 연꽃을 조각한 원형대좌이다. 이 대좌 위에 모서렸던 것으로 보이는 석조불상은 여러 조각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하고있다.

장항리사지를 마지막으로 경주 답사여행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천년왕국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주를 뒤로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도 전해지는 옛 절터의 이야기처럼 경주 테마여행도 정기회원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5월 8일(금)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 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문화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매암차박물관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방문
- 12:00 중식
- 13:00 매암차박물관 제다 체험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양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 신청방법 | 엽서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지휘 전상철



반주 이영옥



반주 이승윤

안무지도자 노금선
합창지도자 김양자

- 특별출연 -



플루트 오영인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차윤희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Program

- ◆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편
· 애니로리, 그린슬리브스, 런던멜리의 노래, 로렐라이, 들장미 메들리
- ◆ 이탈리아, 미국 편
· 산타루치아,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 나의 태양, 캔터키 옛집, 꿈길에서, 언덕위의 집
- ◆ 아르헨티나 편
· 리베르탱고
- ◆ 한국, 중국, 일본 편
· 아리랑 고개 위의 모리화와 사쿠라
- ◆ 세월호 추모곡
· 눈물기도, 라크리모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2015. 4. 16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000원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의 | 홍보팀 051-607-3108, 공연운영팀 051-607-3147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http://culture.busan.go.kr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 ~ 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32_ 프리뷰
38_ 리뷰
40_ 프로그램 가이드
56_ 새로 나온 음반
57_ 새로 나온 책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3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차성아트홀 723-7203
금정문화회관 519-5651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수아트홀 744-1415	청춘나비스극장 070-8241-2560
동래문화회관 550-6611	가온아트홀 1600-1602	소민아트센터 991-1100	초콜릿백토리 621-4005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3	숨사탕아트홀 922-454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1588-9155
부산문화회관 1607-6051~5	공간소극장 611-8518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AN아트홀 광안 1600-0316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087	글로벌아트홀 505-5995	아트카페 움 557-3369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부산시민회관 630-5200	디코소극장 464-1996	액티스소극장 611-6616	BEXCO 오디토리움 740-73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부산햇살가득한날에 1899-3253	무대공감 623-0678	열린아트홀 527-0123	KBS부산홀 620-7181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3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웅천지탈소극장 612-4312	LIG아트홀 1544-3922
영학의전당 780-6000	마리내소극장 504-2544	일터소극장 635-5370	MBC롯데아트홀 1688-8998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1544-1555	자유바다소극장 441-2733	SM아트홀 1600-160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4.11(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송승환의 명품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대륙 오즈에 떨어진 주인공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에 발간된 미국의 작가 L. 프랭크 바움의 아동문학에서 출발, 190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1939년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모험길에 오른 도로시가 '머리가 없는 허수아비'와 '용기'가 없는 겁쟁이 사자, '마음'을 잃어버린 양철통 아저씨를 만나면서 진정한 지혜와 용기, 따뜻한 마음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다는 교훈을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뮤지컬로 많이 제작되었지만 지난 2005년 연기자이자 '난타' 제작자인 송승환이 제작한 '오즈의 마법사'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첫 공연에서 80%의 놀라운 좌석 점유율을 자랑하며 어린이 공연계의 다코호스로 떠올랐다. 이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 순회공연을 거쳐 2009년 1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웅진씽크빅 아트홀(現 예림당아트홀)에서 오픈런 공연을 가지면서 누적 관객 30만 명을 넘어서는 흥행작으로 자리잡았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무대연출과 영상으로 더욱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송승환표 오즈의 마법사'에서만 볼 수 있는 신명 넘치는 난

타공연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난타 공연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올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해진 난타 리듬을 경험할 수 있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4.15(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봄기운이 무르익어가는 4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세기 음악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 제509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에 대한 탁월한 해석은 물론, 천재적인 감각과 신선한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김지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성악가들의 서정적인 오페라 아리아 연주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색채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강렬한 리듬과 원시주의적 색채로 음악사상 문제작으로 손꼽히는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을 들려준다.

1부 무대를 열어줄 테너 김지호는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 고르스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살로메', 쿠바국립오페라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제1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아이다', 부산문화회관 기획 오페라 '투란도트', 세종문화회관 기획 오페라 '토스카' 등 오페라 주역을 비롯해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김지호는 2007년 국제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예술인, 2012년 부산음악상 및 부산예총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테너 김지호와 함께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박현정은 신라대학교 음악과와 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미국 이스트만음대, 이태리 밀라노음악원 토스카니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한국성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부산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박현정은 그동안 15차례 독창회를 비롯 KBS교향악단, 부산시립

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등과의 협연 무대,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푸치니 오페라 '마농레스코' 중 '이런 미인 본 적 없어', 칠레아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뢰르' 중 '너 무나 아름다운 당신',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내가 던진 이 꽃은-꽃의 노래' R. 슈트라우스 '체칠리 p 27-2', 푸치니 오페라 '카르멘' 중 '내 이름은 미미',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요'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2부 무대를 장식할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은 1913년 5월 29일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된 당시 관객들의 합성과 자유로 혼돈 속에서 공연이 끝나면서 공연 역사상 가장 요란했던 스캔들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곡은 태양신 이알리로에게 바치는 선택된 처녀들의 희생의 의식을 그린 발레극의 음악으로 다채로운 관악기의 사용으로 복잡하면서 강렬한 리듬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5 교향악 축제'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참가한다.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44, 315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

4.23(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국악 관현악의 레파토리 개발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이 4월 2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국악작곡가들에게 위촉 의뢰한 작품들을 초연하는 무대로, 부산지역의 정서가 묻어나는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만날 수 있다. 첫 무대는 남원시립국악단 지휘자이자 전북창작악회 회장으로 있는 작곡가 김선의 창작성악곡 '을숙도', 낙동강 하구 철새들이 찾아드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를 그린 윤광일 작시 '을숙도'를 국악 관현악과 판소리목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부수석 정선희가 들려준다. 김선은 그동안 국악칸타타 '매창뜰에 이화우 흠날릴 제', 무용음악 '청의 눈물', 창극 '춘향 네 개의 꿈, 국창 송만갑, 어화동등 내사랑', 국악관현악 '축제의 향연' 등 다수 작품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곡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작곡가 조원행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대금 협주곡 [화(花).연(淵)]'.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대금과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이번 작품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손한별이 연주한다.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미국 뉴욕시립대학원 작곡가를 졸업한 조원행은 동아콩쿠르 및 I.S.A.M 작곡상(미국음악학회), 대한민국 작곡상,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작곡가 강상구가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피리협주곡 '푸른 고래의 꿈'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김경수가 들려준다.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상구는 제1회 KBS서울드라마어워즈 음악총감독, KBS국악관현악단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KBS대학국악제 우수작곡상, 동아음악콩

쿠르 작곡부문 2위, 제12회 한국뮤지컬 음악상, 제1회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011년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1996년, 1998년 KBS 서울국악경연대회 창작부문에서 입상하고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 전공교수로 있는 정동희는 '색의 바다' 청사포를 소재로 한 국악관현악 '색향(色香)'을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청주시립국악단 단원으로 있는 작곡가 이지영의 국악관현악 '해운대 뱃놀이'로, 신윤복의 그림 '뱃놀이'를 모티브로 부산 해운대 바다위에 펼쳐지는 신선놀음을 상상하며 작곡한 작품이다. 2009년 한국국악협회 '국악작곡축제' 관현악부문에서 수상한 이지영은 2014년 작곡앨범 '눈물꽃'을 발매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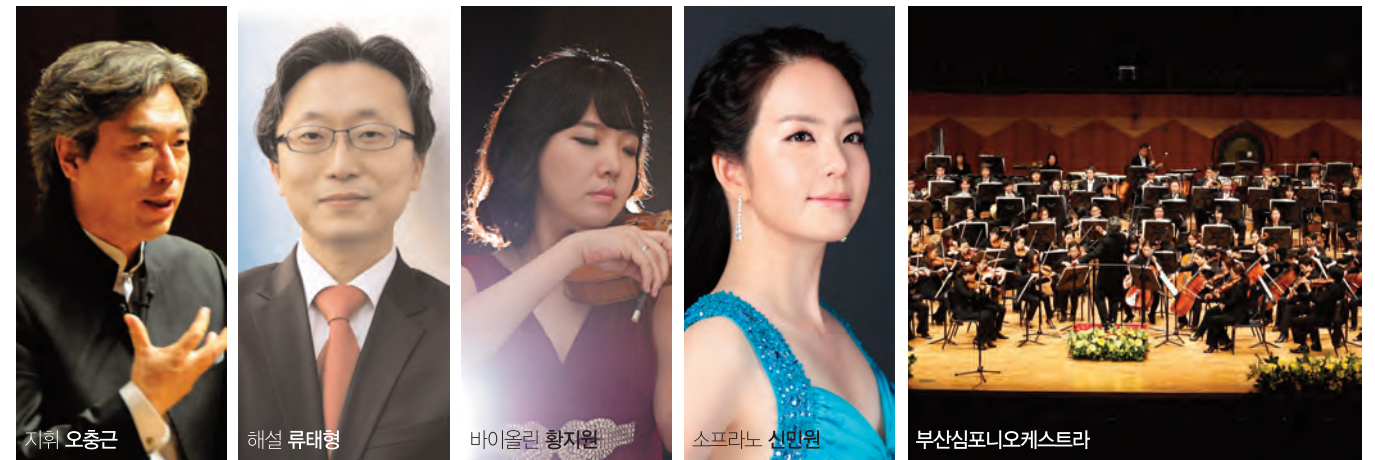
입장료 R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4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 -프랑스 4.25(토)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여행과 음악을 결합한 특별한 무대 '세계음악 디스커버리'가 4월 25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주말 오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프로그램인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2015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공모에 선정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기획 프로그램으로, 실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하게 여권(팜플렛), 탑승권(티켓), 입국심사(공연스탬프), 면세점(홍보물) 등 음악회장을 공항으로 탈바꿈시켜 색다른 문화체험과 함께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즐길 수 있다.

지난 1월 러시아로 떠나는 음악여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의 여행지는 바로 프랑스.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오충근의 지휘, 월간 '객석'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제, 마스네, 구노, 생상스, 드뷔시, 오펜바흐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번 프랑스 음악여행에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라 무지가 앙상블 리더, 토리스 하우스콘서트 음악감독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미국 맨하탄음대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신민원이 동행한다.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음대를 졸업한 황지원은 그동안 5차례 '황지원의 테마콘서트'를 비롯해 스위스 로잔, 독일 Bechstein saal, 일본 Salon Duo 홀 초청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울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신포니에타, T.I.F오케스트라,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우크라이

나 글링카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신민원은 더 베리 알렉산더 국제성악콩쿠르, 경성대 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독창회를 비롯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 부산가야금오케스트라, CTS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오페라 Later the same evening, 나사의 회전, 마술피리, 헨델 Susanna, 헨젤과 그레텔, 춘향전,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세계음악 디스커버리'는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6월 13일 아메리카 대륙, 7월 25일 독일, 10월 24일 오스트리아, 12월 26일 이탈리아 등 2015년 6차례 진행된다.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2015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Welcome, Shakespeare

5.1(금)-10(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예술회관, 웅천지탈소극장,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디코소극장, 수영문화원 바다갤러리, 광안리 야외무대



개막작 '말괄량이 길들이기'



폐막작 '로미오와 줄리엣'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2015년 무대가 5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장에서 열흘간 펼쳐진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컨셉은 'Welcome, Shakespeare'. 시대를 넘어서, 국가와 언어를 초월하는 연극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는 작가 셰익스피어를 통해 그의 희곡이 어떤 형태로 변주되어 세계 각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체코, 미국, 한국 등 6개국 6개 우수작품을 선보이는 'Concept'과 올해 8월에 열리는 영국 에딘버러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 프로그램 'Go World Festival', 공연단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더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Dynamic Fringe'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는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의 개막작은 프랑스 Compagnie Les Têtes de Bois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코메디아 델 아르테(Commedia dell'Arte,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가면 희극)라는 전통적 연극 양식에 기초해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프랑스 극단 'Compagnie Les Têtes de Bois'는 기발한 도입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무대 장치를 통해 셰익스피어 희극을 새롭게 해석한다. 폐막작은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의 '로미오와 줄리엣'.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에로티시즘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해 비극, 사랑, 광기, 죽음이 융합된 이탈리아 비극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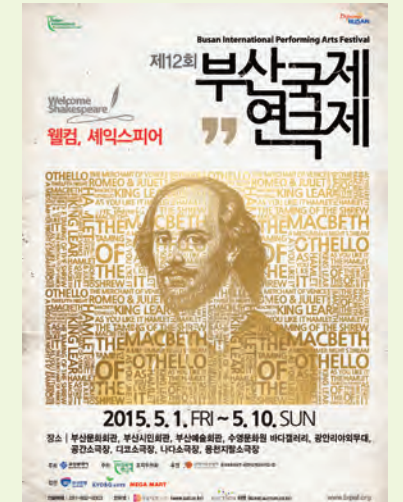
Concept

- 프랑스 Compagnie Les Têtes de Bois '말괄량이 길들이기'(개막작)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미국 체코슬로박-아메리칸 마리오네트 씨어터 '마리오네트 햄릿'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5:00, 4일 월요일 오후 7:30, 5일 화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러시아 Baltic House '맥베스'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대한민국 극단 목화 '템페스트'
7일-9일 목-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체코 슈반도보 극장 '햄릿'
8일 금요일 오후 7:30, 9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이탈리아 Teatro Tascabile di Bergamo '로미오와 줄리엣'(폐막작)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Dynamic Fringe

- 한국 스탬프 '탭탭탭'
2일 토요일 오후 4:00, 7: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부산무용협회 무용단 '춤, 바다를 날다'
2일-3일 토-일요일 오후 6: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김용철 설휘용단 '붉디 붉은...'
2일 토요일 오후 8:00, 3일 일요일 오후 4: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연극공동체 DIC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2일 토요일 오후 8:00, 3일 일요일 오후 5:00, 4일 월요일 오후 8:00, 5일 화요일 오후 5:00,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한국 공연예술집단 아홉 '이방인'
2일 토요일 오후 8:00, 3일 일요일 오후 5:00, 4일 월요일 오후 8:00, 5일 화요일 오후 5:00, 8:00 나다소극장
- 한국 극단 솔마루 '물고기들'
2일 토요일 오후 8:00, 3일 일요일 오후 5:00, 4일 월요일 오후 8:00, 5일 화요일 오후 5:00, 8:00 하늘바람소극장
- 한국 마트 '더 마트쇼'
3일-5일 일-화요일 오후 7: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뮤지컬 컴퍼니 기리프로젝트 '아빠, 함께 해요!
3일 일요일 오후 20:00, 4일 월요일 오후 6: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비씨피 '비씨피 보컬 파티'
4일-6일 월-수요일 오후 5: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티에스아트컴퍼니 '쇼타임'
4일 월요일 오후 8:00, 5일 화요일 오후 6: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스태프컴퍼니 '전쟁과 평화'
5일 화요일 오후 4: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살거스 '영혼들의 축제'
5일 화요일 오후 8:00, 6일 수요일 오후 7:00, 8: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발광(發光) 엔터테인먼트 '유네스코 택견, 부산 거리로 나오다!
6일 수요일 오후 6: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극단 끝판 '병자삼인'
6일-8일 수-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나다소극장
- 한국 우리동네극장 '알세스티스의 도끼'
6일-8일 수-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하늘바람소극장
- 한국 우리동네극장 '광인일기'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6:00, 9일 토요일 오후 4: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두 남자 쇼 '두 남자 쇼'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7:00, 9일 토요일 오후 5: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 한국 극단 진일보 '바보햄릿'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8:00, 9일 토요일 오후 5:00,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한국 씨어터오 '체츨, 여자를 잃다_파우치 속의 욕망'
7일-8일 목-금요일 오후 8:00 광안리 비파프존(야외무대)

Preview



Go World Festival

- 한국 극단 시선 '미롱'
1일 금요일 오후 5:30, 2일 토요일 오후 8:30 공간소극장
- 한국 푸른연극마을 '엄마, 애(哇)'
1일 금요일 오후 8:30, 2일 토요일 오후 5:30 공간소극장
- 한국 극단 나비플러스 '비둘기'
2일 토요일 오후 4:00, 3일 일요일 오후 7:00 디코소극장
- 한국 극단 훌릭 '화우'
2일 토요일 오후 7:00, 3일 일요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 한국 극단 가치가 'Antigone is dead'
4일 월요일 오후 5:30, 5일 화요일 오후 8:30 공간소극장
- 한국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새 사람'
4일 월요일 오후 8:30, 5일 화요일 오후 5:30 공간소극장
- 한국 극단 푸른달 '보물상자'
5일 화요일 오후 4:00, 6일 수요일 오후 7:00 디코소극장
- 한국 극단 풍등 '깨진 밤'
5일 화요일 오후 7:00, 6일 수요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 한국 극단 이수 '안티고네'
7일 목요일 오후 5:30, 8일 금요일 오후 8:30 공간소극장
- 한국 극단 하땅세 '외투'
7일 목요일 오후 8:30, 8일 금요일 오후 5:30 공간소극장
- 한국 마임공작소 판 '잠깐만'
8일 금요일 오후 4:00, 9일 토요일 오후 7:00 디코소극장
- 한국 극단 문 '제랄다와 거인'
8일 금요일 오후 7:00, 9일 토요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입장료 일반 1만 5천원 · 청소년 1만원
개 · 폐막작 1층 2만 5천원 · 2층 2만원
Go World Festival 일반 1만원 · 청소년 8천원
문의 (사)부산조직위원회 802-8003, bipaf.org

금정문화회관 2015 신춘음악회 봄의 축제

음악평론가 신설령

흥미를 끄는 음악회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3월 17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신춘음악회> 안내였다. <신춘음악회>라는 타이틀은 전혀 새롭지 않지만 눈길이 간 것은 연주자들이었다. 부산의 4개 대학 바이올린 교수들이 한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것이다. 경성대학교 임병원, 동의대학교 백재진, 부산대학교 김동욱, 신라대학교 조현미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연주자로 바이올린 김도경, 비올라 김은진, 클라리넷 정우영, 피아노는 부산대학교의 Erno Feher 교수가 맡았다. 그들이 같은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경우일 것이기에 티켓을 구매하려고 금정문화회관에 전화했더니 전석 초대라고 한다. 클래식 청중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획으로 연주자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연문화 실태는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에 관객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2014년 공연 티켓 판매 통계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공연 티켓 구매자 중 뮤지컬 관람객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클래식 음악 연주회 티켓 구매자는 5%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볼 때 클래식 청중의 저변확대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음악미는 언제 경험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연주를 보았을 때라고 말한다. 물론 좋은 연주를 보고 음악적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청취경험과 관련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좋은 연주를 보려면 댓가지불이 대체로 크다. 좋은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클래식 청중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기에 그래서 이

러한 기획공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음악회 무료 관람의 효과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극장을 가득 메운 청중에는 대학생들도 많았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청소년들도 많이 보였다.

부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슈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를 시작으로 음악회는 진행되었다.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교향적 협주곡 K.366'이다. 독주자가 오케스트라 음량을 뚫고 나와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곡이지만 모차르트 특유의 가볍고 아름다운 음색이 필요한 곡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주자는 마치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해내었다.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삼중협주곡 Op.56'은 원곡에서 첼로와 함께하는 연주지만 박성완 교수의 편곡으로 클라리넷이 호흡을 맞췄다. 클라리넷의 음색 위에 바이올린이 음악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연주를 즐기는 듯, 음악을 즐기는 듯한 피아노가 함께 함으로써 곡은 훨씬 풍성해지고, 게다가 베토벤 특유의 감동을 향해 나아가는 곡 진행으로 연주자도, 청중도 심장박동이 갈수록 빨라지고 그렇게 무대와 객석은 같은 음악적 감동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다.

비발디의 '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는 분명 협주곡이지만 첼로 솔로의 지속음 위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연주자들이 어디 숨을 데도, 기댈 데도 없는 곡이다.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연주자는 오히려 연주기량을 십분 발휘하여 각자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무대로 만들었다.

마지막 곡은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 부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박성완 지휘자가 이끌고 있다. 박성완 지휘자의 열정이 이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밝아 보이게 한다. <신춘음악회>에서 연주자들이 보여 준 최상의 무대를 통해 클래식 음악 청중의 저변확대라는 기획 의도가 그 싹을 틔우기를 소망한다.



강혜은 초대전

2015. 1. 29(목)~3. 4(수) 맥 화랑

서양화가 박미경

봄은 화랑가로 먼저 찾아오는 것 같다. 캔버스에 만드라미, 복사꽃, 야생화 등 화려한 색상의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이 꽃들은 붓으로 그리지 않은 특별함이 있다.

강혜은 작가의 작업은 흔히 화가들이 쓰는 붓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그리지 않는다. 색을 뭉개고 칠하는 행위가 아닌 유화 물감의 색선들이 겹겹이 쌓여 환상적인 색감과 입체적인 질감을 만든다.

강혜은의 작품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인 잭슨 폴록처럼 물감을 흘리는 행위인 '액션 페인팅', 즉 드리핑(Dripping) 기법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무의식 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드리핑 기법인 자동기술법(Automatism)은 우연히 생겨난 효과로써 무정형의 자유로운 형태로 계산되지 않은 즉흥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이는 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난 잠재의식의 발현이다. 외적세계나 세상의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으며 단지 신체행위의 기록의 장(場)이다. 규정된 형태를 거부하는 액션 페인팅은 관람자의 해석에 따라 형태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작가의 작품에서는 잭슨 폴록처럼 무의식적으로 물감을 드리핑하기 보다는 물감에서 실을 뽑아내듯 씨실과 날실을 겹치고 겹치는 섬세한 행위를 동반한다. 철저히 계산된 듯한 색들의 겹침과 어렴풋이 나타나는 풍경들로 결코 무의식적일 수 없다. 흠뻑림 속에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꽃들과 언덕, 산 등은 형태를 찾아 내야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감을 느끼게 해 준다.

이런 강작가의 작업 스타일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 인해 여러가지 색의 천과 실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작가가 자연스럽게 천의 따뜻한 느낌과 색감을 물감으로 표현하고자 1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녀의 작품에는 추상과 구상이 공존해 있다. 작품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처음엔 물감의 재질만을 강조한 추상적인 그림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물감의 중첩 속에 고즈넉한 자연의 풍경이 보인다. 뿌리는 행위만이 아닌 매우 섬세한 손의 압력과 계산된 색의 중첩으로 형태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좀 더 발전된 작업방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색선 위에 물감 덩어리를 터트리고 그 위에 색선을 다시 쌓았다. 물감인지 실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각적 표현 속에 터진 물감의 흔적으로 작품 재료의 물성(物性)을 나타내 준다.

작가는 "씨줄과 날줄을 교차하듯 색선을 층층이 쌓다보니 추상적인 이미지가 강해져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을 작품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봄과 함께 찾아온 자연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전시인 것 같다.



강혜은 작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일 시 | 3월 27일(금)~4월 12일(일) **중극장·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5 부산연극제.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부산연극제는 창작초연작들의 경연무대인 'IN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에 위한 'OFF부문',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로 풍성하게 펼쳐진다. 올해 'IN부문'은 모두 9개 극단이 참가한다.

극단 여성 '파랑새' [OFF부문]
 4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소극장**

한창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 준호에게 한순간에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다. 준호모와 그의 여자친구 연희는 준호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는 준호. 과연 준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 있을까...
 •각색/신호권 •연출/김태호

극단 누리에 '사초' [IN부문]
 4월 2일(목)~3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임금의 칙령과 교시를 기록하던 예문관 사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으로, 왕이라도 열람할 수 없었던 '사초'를 지켜내기 위한 사관들의 이야기가 역사적 배경과 어우러져 묵직하게 그려진다.
 •작/김문홍 •연출/강성우

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IN부문]
 4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건물 붕괴 현장에 구조작업을 나갔던 박태열 의경이 시민을 구하고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다. 알고보니 건물 붕괴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였던 것. 청와대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 박 의경의 죽음을 여론 물어로 이용하려 하는데...
 •작/이미경 •연출/최성우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OFF부문]
 4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순이, 영이는 언덕에서 기다린다. 또 기다린다. 소녀가 나타나 노래를 하고, 할미가 나타나 선물을 주고, 그리고 함께 다시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결국, 둘은 고도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들고 돌아 고도를 찾아 가는데...
 •작/이정남

극단 더블스테이지 '별 헤는 밤' [IN부문]
 4월 8일~9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열세 살 별이는 '극단 인간만세'에서 정치는 소년 바우와 가슴 떨리는 첫사랑을 하게 되고 별이에게 집착하던 일본 앞잡이 무필은 별이 주변을 계속 맴돈다. '극단 인간만세'가 독립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무필은 단장을 협박하고 단장은 별이를 피신시키려 하면서 사건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OFF부문]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영도다리 아래에는 피난시절부터 점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박도사는 그곳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주역쟁이. 승승장구하던 박도사는 스승인 장도사와 충돌하고 운명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박도사와 모든 것은 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장도사의 갈등은 심해지는데...
 •작·연출/정경환

극단 맥 '임진왜란' [IN부문]
 4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치열했던 부산의 동래성 전투를 그린 극단 맥 '임진왜란'.
 •작·연출/이정남

테너 조윤환 독창회
달빛이 흐르는 전경

일 시 | 4월 13일 월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2만원, 학생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매력적인 음색과 순수한 감성을 지닌 테너 조윤환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 마이스터 엑자멘 과정을 졸업한 조윤환은 유학 당시 독일 베를린 문화부 주최 잘바우 노이 필름극장에서 열린 오페라 '카르멘'의 호세 역으로 독일 최고(古) 음악잡지 'Deutsche Bühne', 'Berliner Morgenpost'로부터 호평 받았다. 귀국 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비롯해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주역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조윤환은 각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현재 부산칼빈신학대학교 교수, 고신대학교,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도 재직중이다.
 •지휘/홍성택 •연주/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독일가곡연구회 제46회 정기연주회
Liederabend

일 시 | 4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6856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46번째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 연주회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후학양성에도 힘써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과 브람스의 가곡작품을 들려준다.
 •소프라노/정은미, 박나리, 양근화, 장은영, 김혜정, 김현주, 윤선기, 정은미
 •테너/김현식 •베이스/문동환
 •피아노/김경미, 곡윤희, 공소현, 성민주
 •클라비어 듀오/비미은, 김성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일 시 |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44, 3154

20세기 음악의 혁신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성악가인 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김지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성악가들의 서정적인 오페라 아리아 연주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색채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강렬한 리듬과 원시주의적 색채로 음악사상 문제적으로 꼽히는 '봄의 제전'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푸치니/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이런 미인 본 적 없어'
 칠레아/오페라 '아드리아나 르쿠브르르' 중 '너무나 아름다운 당신'
 R. 슈트라우스/첼치리 p 27-2
 푸치니/오페라 '카르멘'중 '내 이름은 미미'
 스트라빈스키/봄의 제전 등
 •지휘/리신차오(수석지휘자)
 •협연/소프라노 박현정, 테너 김지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일 시 |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송승환의 명품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지난 2005년 '난타' 제작자인 송승환이 제작한 '오즈의 마법사'는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첫 공연에서 80%의 놀라운 좌석 점유율을 자랑하며 이후 누적 관객 30만 명을 넘어서는 흥행적으로 자리잡았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무대연출과 영상으로 더욱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오즈의 마법사'는 특히 '송승환표 오즈의 마법사'에서만 볼 수 있는 신명 넘치는 난타공연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제4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YG콘서트 '베토벤교향곡시리즈III'

일 시 | 4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세 번째 무대로 마련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젊은 차세대 연주자와 지휘자 육성 프로젝트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지휘자 김이 지휘하고 지난해 협연자 공모에서 선정된 피아니스트 김영실이 협연한다. 부산대학교에서 비올라를,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한 다니엘 S 김은 현재 BS뮤직캠프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행복나눔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어머니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의치대오케스트라 지휘자, 영도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필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Quartet Genius, Quartet Amici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 최고 연주자과정으로 졸업한 김영실은 독일에서의 10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입상 기념연주, 조선일보 주최 신인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 37
 베토벤/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영웅' 작품 55
 •지휘/다니엘 S 김
 •협연/피아니스트 김영실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동아피아노포르테 제13회 정기연주회
동아대학교 피아노 동문음악회
'비상'

일 시 |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아피아노포르테 010-2333-2544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피아노포르테의 13번째 정기연주회. 동아피아노포르테는 지난 2000년 동아대 오케스트라와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동아대학교 60주년 기념음악회, 목요일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연주/최지은, 이정아, 정미선, 곡윤희, 김영숙, 이양희, 김민희, 박정미, 장윤정, 김은지, 이미라, 전은영, 전숙영, 박소미, 박미숙, 이현주

극단 키즈샘
백조왕자와 엘리제 공주

일 시 |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15, 11:2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극단 키즈샘 02-6409-6593



안데르센의 명작동화를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극단 키즈샘의 '백조왕자와 엘리제 공주'. 새엄마인 왕비에 의해 왕자인 오빠들은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고 엘리제 공주는 요정의 도움으로 오빠들의 마법을 풀기 위해 가시 풀로 옷을 찢기 시작하는데... 어느날 이웃나라 왕자가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그녀를 궁전에 데려가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왕비는 공주를 마녀라 속여 사형시키려 한다. 과연 공주는 오빠들을 구하고 마녀를 물리칠 수 있을까? 나쁜 왕비의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해버린 오빠들의 마술을 풀기 위해 이름을 참고 가시풀로 옷을 찢는 엘리제 공주의 이야기를 그린 '백조왕자와 엘리제 공주'는 형제자매를 향한 따뜻한 우애와 가족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가족뮤지컬이다.
 •연출/오금석

소프라노 구민영 독창회

일 시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구민영 010-2460-2450



서정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에너지 넘치는 화려한 기교를 지닌 소프라노 구민영 독창회.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수석 졸업하고 Accademia A.I.D.M와 Accademia di Roma에서 오페라 연구 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 합창지휘에까지 디플로마를 획득한 구민영은 국제콩쿠르 Premio Enrico segattini에서 특별상을, Musica Sacra 종교성악콩쿠르에서 로마지역청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귀국 후 국내 주요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서온 구민영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창작오페라 '해운대',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루치아', '사랑의 묘약'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피아노/이영민 •바이올린/우소라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일 시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47

아르헨티나 이과수국제음악제 초청을 기념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품들을 아름다운 합창으로 선사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수석지휘자 전상철이 지휘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하트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한국장애인 소리에슬단 단원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플루티스트 오영인과 2014년 3월 창단된 후 KBS 초록 동요제 장려상, 제14회 간절 곳 동요제 중창부문 금상 등을 수상한 정관소년소녀 합창단이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아르헨



티나, 중국, 일본 등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곡 연주로 관객들과 함께 고인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

영국, 독일편/애니로리(스코틀랜드 민요), 그린슬리브스(잉글랜드 민요), 런던델리의 노래(아일랜드 민요) 등

브리치알디/벨리니 '노르마'를 위한 환상곡 작품 57 이탈리아, 미국편/산타루치아(코트라우 곡), 돌아오라 소렌토로(쿠르티스 곡), 오 나의 태양(카푸아 곡), 캔터키 옛집(포스터 곡), 꿈길에서(포스터 곡) 등 세월호 추모곡/눈물기도(신상우 곡), 라크리모사(모차르트 '레퀴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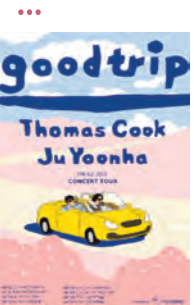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우, 이승운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정관소년소녀합창단(지휘/차운희), 플루티스트 오영인



토마스쿡, 주윤하 'GoodTrip'

일 시 |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만원(예매시 1만원 할인)
문 의 | GOOD TRIP 2015

@juyoonha,facebook.com/juyoonha



싱어송 라이터 토마스 쿡과 주윤하가 함께 하는 봄날을 담은 여행,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Good Trip'. 한층 성숙해진 연주와 노래로 2년만에 한국에 돌아온 토마스 쿡과 지난해 'Jazz Painters'를 통해 또 다른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던 주윤하가 2012년 첫

여행 후 시간의 무게 만큼 쌓였을 그들의 노래로 관객들을 찾아가는. 함께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여행인 그들의 무대에서는 보드카레인 시절의 곡들부터 재즈 페인티스 수록곡 까지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시민을 위한 관악의 대향연

일 시 | 4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010-8503-0000

1997년 금관 5중주로 출발한 이래 금관 10중주, 윈드오케스트라로 확대 개편하며 새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가 부산시민을 위한 웅장한 관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David Shaffer/Celestial Legend Baropue and Blue(arr., Ji-Man Kim) 차이코프스키/1812' 서곡 Alfred Reed/El Camino Real Les Miserables(arr. by Mareel Peeters) The Symphonic Beatles(arr. by John Cavas) Abba On Broadway(arr. by Michael Brown)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70-8265-0776, www.kcac.or.kr

젊은 연주자 시리즈로 마련되는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정기연주회.

오후 4:00 라이즈 앙상블

부산을 대표하는 차세대 피아니스트 김재준, 바이올리니스트 조우태, 성윤미, 비올리스트 박아름, 첼리스트 윤성민으로 구성된 피아노 콰텟 라이즈(RAISE) 앙상블의 무대.

[프로그램]

슈만/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피아졸라/프렐류드, 푸가 9 피아졸라/탱고 발레



오후 7:30 맨즈 하모니 남성 특유의 중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으로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팝송,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과 만나온 남성 4인조 크로스오버 앙상블 '맨즈 하모니'의 무대.

성민기, 최태근, 조용훈, 손상혁으로 구성된 맨즈 하모니는 그동안 KBS를 클래식 음악회,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콘서트,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해운대 사랑의 콘서트, 경주문화엑스포, 부산 국제마루음악제, PBC 화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었다.

• 반주/서형진



박주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4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주영 010-8667-0562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중 도미, 뉴잉글랜드 음악원 학사, 클리브랜드 음악원 석사(장학생 및 우등졸업), 일리노이 주립대 박사(전액장학 졸업 및 teaching assistant) 과정을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독주회.

클리브랜드음악원 오케스트라 악장, 일리노이대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하기도 한 박주영은 독주자, 협연자, 실내악 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드뷔시/바이올린 소나타 시단조 쇼송/시곡 작품 25 파가니니/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칸타빌레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 피아노/정혜연
- 기타/전장수

제26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임병원 010-4909-7444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경성현악합주단의 26번째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교수의 지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시대의 비발디부터 고전시대 모차르트, 낭만시대 보로딘, 근대의 닐센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준다.

특히 현악4중주로 연주되는 작품들을 현악합주로 연주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보다 폭넓은 음량과 깊은 음색의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 지휘/임병원(경성대학교 교수)
- 협연/임병원(바이올린), 이동열(첼로,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수석)



남동우 클래식기타 독주회

일 시 | 4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We Music 365-0033, 010-6416-5482



2012년 한국기타연주자협회 중고등부 콩쿠르 입상을 시작으로 2013년 신라대학교 주최 제44회 고등부 현악기부분 1위, 한국기타협회 주최 제32회 국제기타콩쿠르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동우 클래식기타 독주회.

학창시절부터 창작곡연주와 중주, 솔로에 이르는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쳤던 남동우는 유럽의 관록있는 앙상블단체인 카펠라이스트르폴리타나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류트 모음곡 제2번 BWV 997 M. 로베프/소리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15 빌라 로보스/12개의 에튀드 M.C. 테데스코/소나타 작품 77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프라하의 봄

일 시 |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작곡가 아나책의 연주법을 완벽의 경지로 올려놓았다'는 호평과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1947년 창단된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은 60여년 세월동안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음악적 전통을 바탕으로 음악적 신념을 고수하면서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현재 바이올리니스트 밀로스 바체, 리처드 크루지크, 비올리스트 잔 레즈니체크, 첼리스트 브레티슬라브 비비탈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책 스트링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드보르작과 스메타나 등 체코 작곡가들의 곡과 체코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프라하의 봄'에 삽입된 작곡가 아나책의 '현악 4중주 2번 비발디'를 들려준다.

- 피아노/박정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A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43



국악 관현악의 레퍼토리 개발과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펼쳐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

수석지휘자 김철호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국악작곡가들에게 위촉 의뢰한 작품들을 초연하는 무대로, 부산지역의 정서가 묻어나는 다양한 창작국악곡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김선/창작성악곡 '을숙도' 조원행/국악관현악을 위한 대금 협주곡 '화(花).연(淵)' 강상구/국악관현악을 위한 피리협주곡 '푸른 그래의 꿈' 정동희/국악관현악 '색향(色香)' 이지영/국악관현악 '해운대 뱃놀이'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박성희, 정선희(노래), 손한별(대금), 김경수(피리)

레이비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레이비 앙상블 010-9841-1006

고신대학교 기악과 동문들로 구성된 젊은 앙상블 연주단체인 레이비 앙상블의 무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편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프로그램|
 폴로드 볼링/플루트와 재즈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중 '센티멘탈'

베토벤/첼로와 피아노, 클라리넷을 위한 3중주 제4번 내림나장조 작품 11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수곡
 • 플루트/이용현 • 바이올린/김성진, 김지훈
 • 피아노/최인규, 황선지, 이상미, 김성진, 김지훈, 황선지, 박은혜

• 반주/송현섭 • 특별출연/두나미스 중창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한국 가곡의 밤

일 시 |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010-7767-4390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각국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대학교 출신 성악가들로 구성된 부산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매년 1~2회의 정기공연 및 초청공연, 오페라 '라미코 프리츠', 프랑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아리아와 이중창의 밤, 우리 가곡의 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가 즐겨 듣고 부르는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소프라노/서정아, 장은영, 양성희, 박소영, 옥혜나
 • 테너/정종철, 엄현섭, 양승연, 김성배
 • 바리톤/오세민, 윤공민
 • 베이스/이철훈, 최현욱
 • 피아노/이현주, 이경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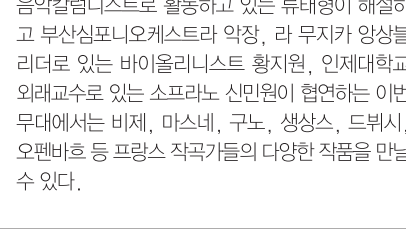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세계음악 디스커버리-프랑스

일 시 | 4월 25일 토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온 가족이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 음악회장을 공방으로 탈바꿈시켜 여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색다르게 즐기는 문화체험과 함께 지휘자, 해설가의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형이 해설하고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라 무지카 앙상블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인제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신민원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제, 마스네, 구노, 생상스, 드뷔시, 오펜바흐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연주/우소리(바이올린), 최은혜(바이올린), 홍영선(비올라), 서승은(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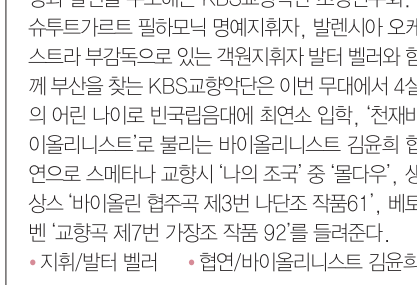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일 시 | 4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지난 1956년 창단된 후 수준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향악단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온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명예지휘자, 발렌시아 오케스트라 부감독으로 있는 객원지휘자 발터 벨러와 함께 부산을 찾는 KBS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4살의 어린 나이로 반국립음대에 최연소 입학, '천재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협연으로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나단조 작품61', 베토벤 '교향곡 제7번 가장조 작품 92'를 들려준다.

• 지휘/발터 벨러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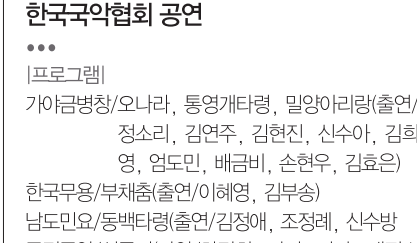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 부산연극제 일정으로 4일, 11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4월 18일 **한국국악협회 공연**

• 가야금병창/오나라, 통영개타령, 밀양아리랑(출연/정소리, 김연주, 김현진, 신수아, 김희영, 엄도민, 배금비, 손현우, 김효은)
 한국무용/부채춤(출연/이혜영, 김부승)
 남도민요/동백타령(출연/김정애, 조정래, 신수방)
 퓨전국악/신물이(타악/하정희, 이지, 피리·태평소/정주아, 대금/이미숙, 해금/조유현, 가야금/박현정)
 경기민요/장기타령, 청춘가, 매화타령, 방아타령(출연/김강남, 백은자, 임소연, 정미선, 박영희)
 • 반주/송재우(대금), 하정희(장단)



4월 25일 부산시립교향악단 Open Strings

일 시 | 4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1일 **대구클라리넷콰이어와 함께하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제19회 정기연주회**

지난 1989년 클라리넷리스트 정우영의 제자들로 창단된 후 클라리넷 대중화와 후진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클라리넷콰이어의 19번째 정기연주회.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7일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엄옥자 원향총판'**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예능보유자이자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원로춤 엄옥자 선생의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초대 예술감독을 역임한 엄옥자는 2002년 제8회 아·태 장애인경기 개, 폐막식 총괄안무를 맡아 대통령 포상을 받았으며, 2001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서정연의 무대.

신라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경성대학교 무용교육대원을 수료한 서정연은 그동안 4차례 개인공연을 비롯



PSB 문화대상, 2005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동영입춤, 승전무 '동영검무', 원향살풀이춤, 원향지무, 승전무 '동영복춤'
 • 춤/엄옥자, 변지연, 김윤옥, 구지연, 김민정, 김현숙

14일 **서은영 해금독주회**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해금 부수석, 해금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있는 해금주자 서은영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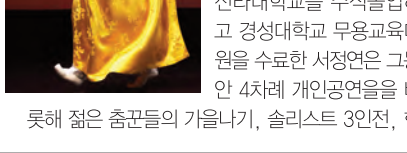
|프로그램|
 지영희류 해금삼소, 다량쉬(김대성 곡), 견명곡(김영재 곡), 활의 노래(이정민 곡)

• 장구/박현영, 최종희
 • 25현가야금/곽재영

21일 **서정연의 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춤꾼 서정연의 무대.

신라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경성대학교 무용교육대원을 수료한 서정연은 그동안 4차례 개인공연을 비롯



여름밤의 춤, 우리가락 우리마당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지난 1997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 '즐거은 잔칫날' 보조안무, 2004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창작 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 조안무를 맡은 바 있다.

|프로그램|
 오공양작법무(나비무), 바람, 강(이준호 곡), 태평무(강선영류), 농(弄)(장고춤), 풍류산조춤(그대가 꽃)

• 해설/오은영
 • 춤/서정연, 신서연, 김진영, 장래훈
 • 가야금/배민성, 김민승, 이재은, 김홍경, 장혜지

28일 **유은주의 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은주 춤춤무용단 대표로 있는 춤꾼 유은주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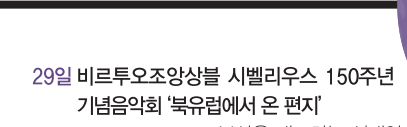
유은주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무용단 '춤'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살풀리(김진홍류), 신무, 진주검무, 태평무(강선영류),

지전춤(김진홍류), 부은호트춤, 십이제장고춤(김취흥계 한혜경류)

• 춤/유은주, 박광호, 강정운, 김민서, 송선숙, 송임숙, 김미선

• 특별출연/김진홍



Program Guide >>>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균일 1만원(16일 공연은 균일 3만원, 사전예약 필수)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4월 무대.

1일 소프라노 김정현 리사이틀 '달콤한 4월이 오면'
부산이 낳은 매혹의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김정현의 무대.

고신대학교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한 김정현은 그동안 다양한 오페라 무대를 통해 깨끗하면서도 매혹적인 톤 칼라, 고음에서의 완벽한 멜리시마 처리, 천부적인

음악적 카리스마로 주목받고 있다.
• 피아노/강지원 • 해설/손욱

2일 테너 윤정윤의 한국가곡 이야기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빠르마 국립음악원(성악), 쾰리 시립음악원(합창지휘), 오르페오 아카



데미(오페라과장)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회와 MBC 목요일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통일기원 열린 음악회, 오페라 주역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테너 윤정윤의 일곱 번째 독창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 해운대구립 여성합창단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정윤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이현주

9일 창작국악단 젊은 풍류와 함께하는 '풍류가 있는 봄밤의 풍경'

2008년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창작국악단 젊은풍류의 무대. 창작국악단 젊은풍류는 그동안 '藝人 신윤복과 김홍도의 그림 밖을 뛰쳐 나오다!', '술에서 부는 소리', '絃 위의 일상', '가야의 노래', '新 고려가요', '민화



풍류와 노닐다' 등 민족예술과 전통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연작품을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다.
• 연주/최경철(가야금, 옥류금), 김현경(거문고), 이윤화(대금)

16일 와인&케이타링이 있는 하우스 콘서트 '해브싱어즈-빛나는 봄날, 추억'



바리톤 강경원, 테너 홍지형, 베이스 권영기 등 음악적 해석과 깊이를 같이하는 세 명의 남성 성악들로 구성된 해브싱어즈의 무대. 해브 싱어즈는 2014년 창단 후 신세계 센터 초청음악회, 부산은행 아카데미 음악회, 산민디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

객과 만나왔다.
• 피아노/하영화

30일 Wiener Klassik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김혜진, 이지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신지현, 인교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성민경, 피아니스트 김선영의 실내악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로망스' 제2번
모차르트/삼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98 '케겔슈타트'
하이든/현악4중주 제2번 '황제'

음악풍경 토크콘서트
나를 적시고 간 노래들 6-최상윤

일 시 | 4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회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 풍경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 명망있는 인사를 초청, 그들의 삶의 위안과 감동을 안겨준 음악의 사연과 함께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로, 초대손님과 관객과의 음악적 소통과 공

감을 꾀한다. 4월에는 동아대학교 교수, 부산예총 회장을 역임한 문학평론가 최상윤이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동아대학교와 세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최상윤은 한국비평문학상, 부산시문화상, 봉성문화상 등을 수상하고 저서로 '한국 자의식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 연구', '둔석의 허튼소리' 등이 있다.
• 진행/박원일(작곡가)

박주원 기타 콘서트 '캡틴' in 부산

일 시 | 4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4만 4천원
문 의 | JNH뮤직 02-3143-5480



경이로운 핑거링을 선보이며 한국에 집시 기타 열풍을 일으킨 '집시 기타 히어로' 박주원의 기타 콘서트. 박주원은 지난 2009년,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선정한 '올해의 앨범', 한겨레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할 신인', 2010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제2전문지 '재즈피플' 2010, 2011년 2년 연속 최우수 기타리스트 선정, 2012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크로스오버' 부문 수상 등 평단과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축구 마니아이기도 한 박주원은 이번 무대에서 영리한 캡틴 박지성 축구선수에게 헌정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3집 앨범 타이틀곡 '캡틴 NO. 7'을 비롯해 그동안 앨범을 통해 발표했던 축구 연작을 한 자리에 모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박주원(기타), 유승철(기타&트럼펫), 구본암(베이스), 진영수(퍼커션)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협주곡의 밤

일 시 | 4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협주곡의 밤. 류민아, 김승운, 서정현, 김세연, 이채린, 하현지, 신남재, 김선형, 조윤서, 이주경, 이하나 등 단원 및 재능있는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의 관악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연주자들의 학구적인 무대로,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실력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요한 요아힘 크반츠/협주곡 사장조 QV5:174
보케리니/협주곡 라장조 작품 27
메르카탄테/협주곡 마단조 작품 57
하이든/Die Londoner Trios
모차르트/협주곡 제1번 사장조 KV313 등

김대영 피아노 리사이틀 '외출'

일 시 | 4월 5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한국국제예술교류협회 010-9168-9434



세계적인 음악학교이자 공연예술학교인 Guildhall School of Music & Drama에 만 16세의 나이로 조기입학해 현재 학사학위를 받은 후 동 음악학교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피아니스트 김대영 독주회.

부산진중학교 재학시절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지난 2005년 9월 영국 Chetham's School of Music에 입학한 김대영은 2007년 RNCM 소펍 피아노콩쿠르 1등, EPTA 피아노콩투르 1등, JAMES MOTTRAM 콩쿠르 세미파이널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브조니-바흐/사롱느 드뷔시/판하 슈베르트/즉흥곡 내림바장조 D.899 제3번
칼 바인/피아노 소나타 제1번

제4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The Miracle

일 시 | 4월 9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부산신포니에타와 2013년 대관령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과 함께하는 제4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지난 1986년 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리더로 창단된 부산신포니에타는 매년 3~4회의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국내외 순회연주, 청소년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수준높은 연주무대를 펼쳐왔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201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아티스트 국제콩쿠르 1위, 2013 홍콩 Schonfeld 국제콩쿠르 입상, 2012 이탈리아 Lipizer 국제콩쿠르 최연소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한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이다.
• 지휘/서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전통과 코믹의 한국오페라 봄봄

일 시 |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5: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예매시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탁월한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김유정의 단편소설을 한국형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창작오페라 '봄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근용 교수가 새롭게 창작한 오페라 '봄봄'은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요소들을 잘 살려 한국형 오페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히 우직하면서도 순박한 주인공 캐릭터와 영동한 반전 등 희극적 요소를 적절히 가미시켜 오페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길동의 주역인 오영감 역에는 바리톤 고영호, 최대우, 순박한 청년 길보 역에 테너 장진규, 양승엽, 점순이 역에는 소프라노 고예정, 왕기현, 어머니 안성덕 역에는 메조소프라노 박소연, 이지영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 열연을 펼친다.
• 예술총감독, 연출/김경
• 음악감독, 피아노/양광기



부산신포니에타 제8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8천원
문 의 | 부산신포니에타 010-8519-0448



맑고 풍부한 음색과 정상급 지휘자와 독주자를 초청, 바로크시대부터 현대음악까지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온 부산신포니에타 84번째 정기연주회. 독일 크로스 챔버오케스트라,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유럽과 한국에서 차세대 젊은 지휘자로 각광받고 있는 지휘자 서진이 지휘하고 2013년 대관령국제음악제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교향곡 제10번
모차르트/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가장조
쇼스타코비치/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아
• 음악감독 및 리더/김영희
• 지휘/서진
•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BTN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일 시 |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BTN남성중창단 010-9610-9465



지난 2014년 1월, 성악을 전공하고 부산, 경남지역의 사찰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로 결성된 BTN 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BTN남성중창단은 앞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를 기획, 일반인들에게 남성중창음악의 매력을 전하며 대중화를 이끌어내고

국내 작곡가들에게 창작곡을 위촉, 초연무대를 통해 창작음악의 활성화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경전 한구절, 마음의 문, 백학, 내영혼 바람되어, 아리랑, 버터플라이, 미남이다, 봉숭아, A MI MANERA(MY WAY)
• 테너/문정재, 강은태, 임찬우
• 바리톤/추현철, 윤지영
• 베이스/조창준, 류동호
• 피아노/진보라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이야기 오페라 & 피아노

일 시 |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아이오피아노소사이어티 010-8690-8673



인제대학교 피아노과 동문으로 결성된 I. O. Piano Society의 피아노로 듣는 오페라 이야기. I. O. Piano Society는 2013년 창단 후 Sonatina Lecture Concert, 영상과 함께 하는 자선음악회 '차이코프스키 세계', 이야기기가 있는 살롱 음악회

'Love Essay & Classic', 영상 속에서 만난 클래식 'SCENE & CLASSIC'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무대를 마련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 피아노/강대원, 김다은, 김장미, 김지혜, 박선하, 윤현정, 장미경, 최민서
• 소프라노/양은비, 양효정
• 플루트/정해인

제5회 라온첼로 합주단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12일 일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송미경 010-5012-8188

첼로가 좋아 모인 전가족부터 일반인 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이 활동하는 순수 아마추어 첼로 모임인 라온첼로 합주단의 5번째 정기연주회. '즐거움 첼로'라는 뜻의 라온첼로 합주단은 지난 2010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연주회, 음악봉사 활동 등 매년 7회 이상 연주무대를 가져오고 있다. 신춘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싱그러운 봄기운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우정출연/리딩톤(LEDING TONE) 중창단
- 트럼펫/이병섭
- 소프라노/정미순



Amos Ensemble 1st cocert

일 시 | 4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이해리 010-4561-4837

병원, 장애단체, 복지관 등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기부로 음악사랑을 펼치고 있는 아모스앙상블의 첫 번째 무대. 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더 이해리를 중심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정원준, 이지영, 김지은, 비올리스트 이주비, 김대건, 첼리스트 박준현, 김윤영, 피아니스트 박영진, 플루티스트 허주영으로 구성된 아모스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에서부터 영화, 드라마 OST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금동초등학교 총동창회 초청음악회 봄을 여는 소리

일 시 | 4월 12일 일요일 오전 10:30
금동초등학교 체육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최삼화 010-8028-0856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금동초등학교에서 펼쳐지는 신춘음악회. 부산의 젊은 음악가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국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벨리타 현악4중주, 이음트리오, 현대음악앙상블 누벨바그 멤버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현리사, 테너 오동주, 소프라노 조윤정 등이 출연, 새봄을 알리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연주회에 앞서 신라대학교 예술대학장,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한 유호석 교수의 피아노 증정순서도 마련된다.

박필은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밤

일 시 | 4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필은 010-3563-454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피아노양상블과정, 윈스턴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최고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필은의 무대. 박필은은 그동안 수차례 독주회와 실내악 무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 포항시립교향악단, 부산신포니에타, 윈스터 음악학교 오케스트라, 윈스터 국립음대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에게 있어 신약성서와도 같다'는 베토벤 32개 피아노 소나타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베토벤 3대 소나타'로 불리는 '비창', '월광', '열정'을 들려준다.

영화영화전당 마티네콘서트 피아니스트 윤희천 베토벤 슈베르트

일 시 | 4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영화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영화전당 780-6000



유럽을 무대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희천의 무대. 세계적인 마에스트로故 로린 마젤로부터 발탁되어 2014년 12월 뮌헨 필과의 네 차례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차세대 거장의 출현을 알린 피아니스트 윤희천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던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에서 사랑받고 있다. 2011년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젊은 예술가상'을 수여받으며 독일인보다 더 독일음악에 정통하다는 호평을 받은 윤희천은 현재 뮌헨에 거주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윤희천이 직접 담아와 전하는 슈베르트가 살았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그림같은 풍경과 그곳에 살아숨쉬는 슈베르트의 삶과 음악을 감성적인 이야기와 섬세한 피아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2015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뉴프라이모케스트라 제28회 정기연주회 운명의 수리성

일 시 |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는 뉴프라이모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 하순봉의 창작 관현악곡 'Surisung for Orchestra'를 들려준다. '수리성'은 판소리 중에서도 힘찬 쇯소리를 일컫는 용어로, 경상도 지역의 힘차면서도 강렬한 장단을 관현악곡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뉴프라이모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결성 후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하순봉/Surisung for Orchestra 모차르트/호른협주곡 제4번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 지휘/임준오
- 협연/키야마 아키코(호른)

음악풍경 음악렉처 1 아는 만큼 들린다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일 시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렉처콘서트.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배웠던 '교향의 봄', '오빠생각', '가고파', '선구자', '이별의 노래' 등 한때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간 추억의 노래를 찾아 당시 그 노래의 작곡가들이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한국 서양음악 1세대 음악가들의 음악과 나아가 당대 사회와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이사로 있는 음악평론가 김창욱이 그 시대 그 시절로 음악여행을 이끈다.

- 진행/김창욱

플루트와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 1

일 시 | 4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윤예슬기획 010-9025-2012



플루트와 현악, 플루트와 성악, 플루트와 관악 등 플루트가 들어가는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무대로 꾸며질 '플루트와 함께하는 실내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실내악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며 1부에서는 플루트와 현악, 2부에서는 플루트와 성악, 플루트와 관악의 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레거/세라네대 제2번 사장조 작품 141a 클라크/두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Maya' 등

- 연주/김윤희, 장재호(플루트), 정다희, 김지원(바이올린), 김민경(비올라), 첼로(배성아), 최지원, 김은정, 진승민(피아노), 유지훈(클라리넷), 김현정(오보에), 변지윤(바순), 김영민(호른), 김수현(메조소프라노)

피아노와 함께하는 유럽여행

일 시 | 4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2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서울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남숙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떠나는 유럽 음악여행. 이번무대에서는 스카를라티, 베토벤, 리스트, 슈베르트, 멘델스존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들려준다.

- 20일 연주/이한나, 이은진, 이수미, 신현희, 최윤희
- 27일 연주/김미경, 김지원, 고태욱, 신아름, 김남숙, 허에스터, 박보경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일 시 |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채범석 010-9219-4060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로렌조 페르시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효원성악회, 이태리음악 연구회, 부산남성성악가양성회 회원, 부산 지적장애인 늘푸른합창단, 부산여성성악합창단, 부산서구합창단 지휘자로 활동중인 바리톤 채범석 독창회.

그동안 2차례 독창회를 비롯 다수의 오페라 주역, 부산대학교 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채범석은 이번 무대에서 '봄과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헨델/라르고 슈베르트/미왕 토스티/꿈 흥난파/별치녀 베르디/오페라 '운명의 힘' 중 이중창 등 수곡

- 게스트/테너 양승엽

2015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OST로의 여정

일 시 | 4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인호 010-4554-7777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김인호가 매년 봄 마련하는 메이 플루트 페스티벌 2015년 무대. 고신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비전21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플루트 사중주 '울'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호는 그동안 뉴욕 카네기홀 듀오리사이틀, 줄리어스 베이커 초청 플루트페스티벌, 제주국제관악제, 미국 LA 유니버설스튜디오 초청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페스티벌 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 드라마 OST를 비롯해 아마추어 플루티스트 60명과 피아노, 현악기, 타악기, 금관악기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메들리, 하늘의 움직임은 성, 하얀개탑, 시간을 거슬러, 재즈왈츠, 미녀와 야수 등 수곡

- 음악감독, 지휘/김인호
- 피아노/김희정
- 첼로/이지수
- 튜바/송태진
- 드럼/석이론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심신지, 첼리스트 이기은, 클라리네티스트 김규현, 피아니스트 최영민으로 결성된 앙상블 라온의 무대로 펼쳐지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4월 무대. 복합문화공간 무지크바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11미요/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157b 피아졸라/시계 중 '봄', '겨울' 등



**사랑에 빠진 영화, 영화에 빠진 음악
금성빈 씬 콘서트**

일 시 | 4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
우리에게 실렘과 희열, 눈물과 아픔을 선사한 6편의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묻는 금성빈 씬 콘서트 '사랑에 빠진 영화, 영화에 빠진 음악'.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의 토크콘서트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피아졸라의 대표 연주곡을 들려주는 1부 '탱고',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속 클래식곡을 들려주는 2부 '러브스토리'를 통해 영화의 감동을 음악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은 경성대학교와 독일 Hochschule fur Koin Standort Wuppertal, Hochschule fur Musik Saarbrucken를 졸업하고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소민아트센터 기획 초청연주회
첼리스트 양성원 독주회**

일 시 | 4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소민아트센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 의 | 소민아트센터 991-2200



...
지적이고 독창적인 해석과 연주로 세계 주요 언론과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첼리스트 양성원 초청 연주회.
프랑스 파리음악원과 미국 인디애나음대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취득한 양성원은 그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으며 지난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9년 제4회 대원음악연주상, 제1회 객석예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성원은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RAM) 초빙교수로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장조 작품 69
슈만/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소곡집 작품 73
브람스/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마단조 작품 38
• 피아노/데니스 파스칼

**K-레이디스 재즈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2013년 창단된 이래 국내 외 재즈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온 국내 최초 여성 17인조 재즈오케스트라 'K-레이디스 재즈 오케스트라' 부산공연
색소폰니스트 신경숙을 리더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여성솔리스트들로 구성된 'K-레이디스 재즈 오케스트라'는 여성연주자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사운드로 클래식에서부터 가요, 팝, 국악 등을 재해석,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왔다.
스윙, 보사노바, 라틴, 발라드 등 다양한 리듬의 연주곡들을 구성, 처음 재즈를 접하는 초보자에서부터 재즈 마니아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남성 재즈보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우와 임영일이 함께 출연한다.

서은아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부산예고 실기 수석 입학 후 러시아로 유학,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독주회.
현재 부산 음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TIF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비르투오조 앙상블, 센토 챔버소사이어티, 아미치 콰텟, 아르스 콰텟 단원으로 있는 서은아는 2012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솔로 및 실내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라벨/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사장조
비탈리/사롱느 사단조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부산챔버스퀘어와 함께하는 클래식 산책
제5회 프롬나드 콘서트**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챔버스퀘어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BSO 621-4577

...
126년 역사의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사관 '부산챔버스퀘어'를 알리고자 마련한 프롬나드 콘서트 5번째 무대.
4월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이예성,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지휘자, 폴리포니기타듀오 멤버로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김경태가 출연, 아름다운 클래식명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양경아
• 기타/김경태
• 첼로/이예성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3, 4
청년이 살아야 음악이 산다**

일 시 |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갖게 하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4월 무대.
고신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스마일어머니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소프라노 정은미와 미국 듀케인대학을 졸업하고 5차례 독주회 및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플루티스트 정주연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김동진/신아리랑
아르디티/임맞춤
쥬냥/베니스의 사육제 등
• 진행/조용연(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황인교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이든예술기획 02-6412-3053



...
매혹적인 음색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피아니스트 황인교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를 수석졸업하고 2012년 귀국한 황인교는 대학시절부터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기량을 펼쳐왔다. 독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반주자, 실내악 무대 등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꾸준히 청중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황인교는 현재 동의대학교에 출강하며 제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스크랴빈/피아노 소나타 제5번 작품 53
리스트/피아노 소나타 나단조 S. 178

**숙명가야금연주단 신개념 가족음악극
가야금 톡, TOK, TALK
매우 매우씨**

일 시 |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국악기를 접할 수 있는 신개념 그림자 소리극 '가야금 톡톡, 매우 매우씨'. 그동안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해온 숙명가야금연주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어린이 국악 음악극으로, 2013년 초연된 후 다양한 가야금 주법을 활용한 창작음악과 생동감 넘치는 영상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가야금 톡, TOK, TALK 매우 매우씨'는 조선시대 인왕산 아래 '웃대'라 불리던 경복궁 서촌마을을 중심으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과시한 매우씨가 모든 재능을 잃은 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음악의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다.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연주회
차세대 연주자들 kammer를
만나다**

일 시 |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부산소년의집 관현악단)를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유경이 지난 1992년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의 23번째 정기연주회.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전파 곡들과 합주곡을 주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다양한 무대에서 만나온 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앙상을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피터 하이드리히/해피 버스테이' 변주곡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바흐/konzert fur drei Violinen 등
• 지휘/이라희(객원지휘)
• 악장/조미혜



테너 박정민 귀국독창회

일 시 | 4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박정민 010-3411-8499



...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L. Refice' 국립음악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M. Malibran' 국제음악아카데미, 'A.R.A.M' 음악아카데미 등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테너 박정민 독창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오페라 'Don Giovanni'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박정민은 이탈리아 Altidona시 초청 연주, 이탈리아 로마 S. Martiri Coreani 성당, S. Maria in Aracoeli 대성당 연주, 한·일 친선교류음악회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박정민은 현재 부산예고 강사, 소리쟁이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프로그램|
벨리니/방랑하는 은빛 달이며
베르디/스투르넬로
김동환/그리운 마음 등 수곡
• 피아노/박소미
• 특별출연/소프라노 강소영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
200회 기념 콘서트
2015 봄날의 축제**

일 시 | 4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200회를 맞아 마련한 기념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살롱음악 회로 자리잡아온 Space UM '차가 있는 목요일음악회'에 다년간 연주자들이 출연, 200회를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1부에서는 움 챔버 오케스트라와 드라마 '겨울연가' OST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데이드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2부에서는 재즈밴드 레인메이커, 퓨전국악팀 음악대륙 가야아, 하지림 재즈트리오, 가수 나들(일기예보)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준다.

**뉴 컴퍼러리 서커스 음악극
사물놀이 이야기**

일 시 | 4월 30일~5월 1일 목~금요일 오후 8:00
5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만 7세 이상 관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
한국의 아시아나우(AsiaNow)와 호주의 대표적인 현대 서커스 극단 렉스온더월(Legs On The Wall)이 공동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현대 서커스 음악극. 우리 겨레의 대표적 음악인 사물놀이의 기원과 의미를 이야기로 풀어낸 동영의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 공연언어로 재창된 '사물놀이 이야기'는 한국 전통음악 사물놀이와 호주 재즈와의 만남, 움직임과 미디어아트와의 만남, 호주의 현대서커스와 한국 전통연희의 조우 등 새롭고 역동적인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Play 연극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 시 | 1월 9일(금)~4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15년 전 고교시절의 순수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수지와 봉필, 수지와 이별 후, 봉필은 헬리우드로 건너가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다. 한편, 결혼한 수지는 평범한 유부녀로 지내던 사이 우연히 봉필의 소식을 접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봉필을 그리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잠시 머물게 된 봉필이 수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남을 갖기로 하는데...
 연극 '발칙한 로맨스'는 흔한 듯한 소재에 발칙하면서도 앙큼한 스토리를 더해 특별한 로맨스를 그려낸다.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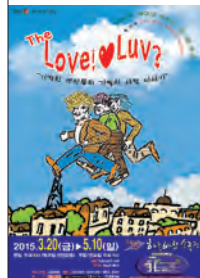
일 시 | 3월 12일(목)~5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과연 결혼은 요즘 세대들의 생각처럼 '살아보고'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부모세대로 대처럼 '결혼하고' 살아봐야 하는 걸까? 혼전 동거에 대한, 더 나아가 결혼 자체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유쾌한 코미디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젊은 커플의 종태와 세리는 동거생활을 하던 중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결별한다. 권태기에 빠져있던 커플의 두 부모들은 단절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소홀함으로 엇갈린 외도로 이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 상견례 자리에서 두 부모의 엇갈린 애정행각이 드러나면서 웃지못할 상황이 펼쳐지는데...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혼전동거'라는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에 대해 풀어낸다.

극단 아센 제42회 정기공연 The Love! Luv?

일 시 | 3월 20일(금)~5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504-2544



기막힌 연인들의 기발한 사랑이야기 초고속 논스톱 하이 코미디극 'The Love! Luv?'.
 아내가 친정에 가 있을 동안 자신의 정부를 불러들여 근사한 생일파티를 열 심산이었던 남편은 갑자기 취소된 아내의 여행계획에 전진 공격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절친한 후배에게 정부의 애인역할을 맡긴다. 그러나 그 후배는 사실 아내의 정부이고 아내가 여행계획을 변경한 이유 역시 후배의 방문을 알게 된 아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벌인 계획인데...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박규남, 반지수,곽수정, 호민

운동주 서거 7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서시

일 시 | 3월 24일(화)~4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 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운동주 서거 70주년 기념해 극단 연희단거리패가 슬프고도 아름다웠던 운동주의 젊은 나날을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서시'.
 창작뮤지컬 '서시'는 시인 운동주가 해수 투입 생체실험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몸매 바닷물을 주입하는 생체실험을 당하는 시인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해수 투입 실험의 두드러지는 부작용은 환각. 죽어가는 시인의 환각이 빛어내는 시편들은 처절하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지금 여기 젊은 영혼들에게 말을 건다.

- 대본/연출/이채경
- 작곡/이수연
- 출연/송준형, 박인화, 김영학, 김연지, 안윤철, 허가에, 양승일

2015 제33회 부산연극제

일 시 | 3월 27일(금)~4월 12일(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인 2015 부산연극제.

극단 까리프로젝트 '욕하고 싶은 날' [OFF 부문]
 3월 27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청춘나비아트홀**

할매의 정겨운 욕이 있는 국밥집을 배경으로 도시민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린 무대.
 • 작·연출/변연진

극단 사나위 '색동다리' [IN부문]
 4월 1일(수)~2일(목)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나름의 철학적 사고로 소방관의 길을 선택한 주인공 이성철은 신도시에서 연거푸 발생하는 자살사건의 죽음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다니던 주인공은 점차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죽어가는 현장은 놓치고 마는데...
 • 작/김경화 • 연출/오정국

극단 도개비 '박수의 별' [IN부문]
 4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조용한 어느 마을에 난데없이 운석이 떨어진다. 운석이 떨어진 땅의 주인은 소년의 아버지이고, 운석의 최초 발견자는 그 마을 중학교 교감선생이다. 소년의 아버지와 교감 선생은 떨어진 운석을 두고 서로 자기가 주인임을 내세우는데...
 • 작/김경미 • 연출/최광욱

극단 이야기 '피안도' [IN부문]
 4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역사의 굴레를 피해 들어온 한국인 정착마을인 일본 동쪽 끝 외딴 섬 마을 피안도를 배경으로 각자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이는 희망을, 용서를, 망각을 가진 채 '피안도'를 가슴에 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 작/김윤희 • 연출/박현형

극단 하늘개인날 '뽕덕' [IN부문]
 4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심청전'에서 주변부에 머물렀던 뽕덕아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극단 하늘개인날의 경연 참가작 '뽕덕'.
 • 작/배유인 • 각색/전혜림
 • 연출/곽중필

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일 시 | 3월 27일(금)~4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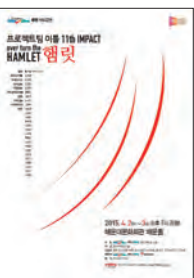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
 꼬짜 독거노인 복순이 할아버지의 집에 복지학과 실습생 태수가 봉사하러 온다. 태수는 친구처럼 지내는 옛 사랑 지혜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지혜에게 사랑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태수는 복순이 할아버지에게 사랑의 의미에 대해 배우려 하지만 답답하고 눈치없는 성격 탓에 매일 혼나기 일쑤고 과연 태수는 볼 같은 성격의 복순이 할아버지에게 무사히 제대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갈 수 있을까?

뮤지컬 '복순이할배 리턴즈'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그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프로젝트팀 이틀 11th IMPACT 햄릿(부제:Over turn 속 Hamlet)

일 시 | 4월 2일~3일 목·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시 5천원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2015 부산 개막작으로 선보인 프로젝트팀 이틀의 '햄릿'은 왕위를 빼앗긴 주인공 햄릿이 부왕의 명령에 의해 겪는 갈등과 복수를 치밀하게 그린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공연되고 있다.
 덴마크를 철혈통치하던 왕이 죽는다. 이웃나라 노르웨이에는 반란이 일어나 포틴브라스가 집권하고 햄릿 왕자를 억류하고 있다며 과거 전쟁 때 덴마크가 빼앗긴 영토를 반환하라 요구한다.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햄릿을 구하기 위해 선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클로디어스는 이번 기회에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야심을 내보는데...

- 재구성, 연출/김지웅
- 출연/엄준필, 유성근, 김이랑, 송준승, 박선희 외

연극 웨딩스캔들

일 시 | 4월 3일(금)~5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4/29일 오후 5:00, 8:00, 5/5일 오후 12:00, 3:00) **KNN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KNN 664-7880



지난 2010년 프랑스에서 초연되어 흥행에 성공한 연극 '웨딩스캔들'.
 천하의 바람둥이 주인공은 고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1년간 위장결혼을 결심한다. 누구에게도 속박받기 싫어 선택한 사람이 바로 20년지기 절친 친구. 딱 1년만 게이 행세를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주인공에게 상황은 단단히 꼬여버리면서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바람둥이 남자가 고모의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 거짓 결혼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게 그려낸 '웨딩스캔들'은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는 현대 사회에서 참된 사랑에 의문을 던지며 우정, 가족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영화의전당 2015 명품연극시리즈 멜로드라마

일 시 |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만 18세 이상 관람)
 문 의 | 영화의전당 780-6000



'사랑이 과연 의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다섯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멜로드라마'.
 극중 김천일과 강서경 부부는 어릴 적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박재현과 박미현 오누이를 만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 김천일은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박미현에게, 강서경은 심장 수술을 받은 박재현에게 이끌리면서 부부라는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연극 '멜로드라마'는 2007년 초연 당시 '불륜'이라는 소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는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을 통해 평단과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작·연출/장유정
 • 출연/박원상, 배해선, 홍은희, 최대훈, 조강현 외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 시 | 4월 2일(목)~7월 5일(일) 오후 5:00, 8:00(월요일, 4/2일, 4/5일, 5/26일 공연 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세대별 커플의 사랑을 따뜻하고 재치있게 풀어낸 대학로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15년 무대.
 세대를 아우르는 다섯가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유니버설 연극으로, 황혼을 맞이한 동네 오빠, 동생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에서부터 전라도 부부의 거칠지만 진한 사랑, 짝사랑하는 과 선배를 유혹하는 짝퉁 여자후배, 친구 피로연에 갔다가 돌이 남게된 오래된 두 친구의 이야기까지 종합선물세트같은 다양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예술감독/위성신
- 연출/신기섭

창작 뮤지컬 '그날들' 부산공연

일 시 |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18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센텀시터 소향시어터 롯데캐슬**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A석 7만 7천원
 문 의 | ㈜에스제이엔터 1599-2005



그가 떠난 지 17년이 지난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故 김광석의 노래들로 엮은 창작뮤지컬 '그날들' 부산공연.
 이등병의 편지, 변해가네, 먼지가 되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부치지 않은 편지 등 김광석의 노래에 청와대 경호원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그날들'은 지난 2013년 초연의 흥행 열풍에 이어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와 무대로 지난 서울 공연에서만 10만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프로듀서/장상용, 손상원
 • 작·연출/장유정
 • 편곡·음악감독/장소영
 • 출연/유준상, 이건명, 최재웅, 지창욱, 오종혁, 김승대, 김지현, 서현철, 이정열 외

2015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극단 맥 '임진왜란'

일 시 |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00, 18일 토요일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맥 550-6620, 625-2117



동래문화회관, 부산민주공원, 북구문화방상센터, 영도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각 구별 문화회관이 상주단체와 함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2015 부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동래문화회관 상주단체인 극단 맥이 선보이는 연극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벌어졌던 동래성 전투를 그린 작품으로, 처절했던 당시의 아픈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끝까지 동래성을 지켰던 백성들의 충절을 그려낸다.

- 작 ·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조영미, 이해영, 허정현, 김병경, 이상미, 하소영, 윤채린, 김명희 외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다섯 번째 이야기

일 시 |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에듀챌린지의 유아교육 전문브랜드인 '아이챌린지'의 인기 캐릭터 호비와 그의 친구들이 등장, 어린이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뮤지컬로 사랑받은 어린이 율동뮤지컬 '호비쇼' 다섯 번째 무대.

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호비와 친구들이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합창단을 만들고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협동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두연극단 창단 30주년 100회 기념 공연 여배우 열전 시리즈(1) 연옥(부제:생사계-삶과죽음사이)

일 시 | 4월 20일(월)-30일(목)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26일 공연없음)
액터스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예매시 5천원 할인)
 문 의 | 극단부두연극단 611-6616, 010-9701-0712

2000년 노벨상 수상작가 가오신젠의 메타연극 3부작 중 하나로, 여성의 성적 정체성과 자아탐구를 소재로 인간 본연의 실존을 다루는 부두연극단의 대표작인 퍼포먼스극 '연옥'. 한 중년 여성의 서술적 독백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품은 꿈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간존재의 고통과 본질에 관한 존재론적인 작품으로, 진정한 자아 찾기라는 과정을 관객과 함께 경험한다.

- 재구성 · 연출/이성규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잉

일 시 | 4월 22일-24일 수-금요일 오전 10:30, 오후 2:30, 25일 토요일 오후 2:3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2만 5천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초중고생 및 대학생, 예술인패스 할인 30%, 단 22일~24일은 초중고생에 한해 무료로 관람가능)
 문 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리듬체조와 기계체조, 치어리딩, 마살아트, 비보잉이 접목된 역동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퍼포먼스극 '플라잉'. 지난 2011년 '난타' '비밥' 등을 연출한 한국 난버벌 창작의 대표주자 최철기가 제작한 '플라잉'은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경주의 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최종우돌 판타지를 표현한 난버벌 퍼포먼스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전태일 40주기 기념작 불꽃

일 시 | 4월 29일(수)-5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 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스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 5천원
 문 의 | 극단 일터 635-5370, www.ilter.or.kr

청계천 의류시장의 재단사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청년 전태일의 생애와 노동자로서의 삶과 고뇌를 그린 창작극 '불꽃'. 지난 2010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초연무대를 가진 '불꽃'은 저임금에 하루 열여섯시간 노동해야 하는 어린 여공들을 위해 싸우다 스물셋 나이에 몸을 불사른 불처럼 뜨겁고 꽃처럼 아름다운 전태일의 삶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Dancing 무용

최은희의 新 굿판

일 시 | 4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663-4964



춤 배김새 총감독,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로 있는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가 이끄는 최은희 무용단의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제3대 안무자,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자, 제16대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희는 1985년 부산 최초의 동인 민간 한국무용단체인 '춤 배김새'를 창단해 부산, 영남지역의 창작무용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생명의 힘이 느껴지는 불기운을 한국전통춤과 재창조된 춤과 공유한 신 굿판을 펼친다.

- 총연출 및 안무 재구성/최은희
- 특별출연/정영만(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 부산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보존회, 풍물패 이바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7회 정기공연 二十四月 춘방

일 시 | 4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풀어낸 춘방무대 '二十四月 춘방'. '二十四月 춘방'에서 춤은 몸을 표현수단으로 시간과 공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예술활동과 더불어 자연을 뜻하고 이십사월(二十四月)은 생동감 있게 변화하는 24절기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다. 춘방이란 스스로 그려내고 저절로 그려낸 자연으로 오로지 춤만을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의미로, 이번 무대에서는 달과 별, 바람을 초대하여 자연으로의 회귀춤판을 벌인다.

- 연출 및 대본/이재환
- 무용감독 및 안무 재구성/오상아
- 특별출연/이성훈(부산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보유자후보)

2015 정신혜무용단 우리춤 재발견 시리즈Ⅳ

일 시 | 4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정신혜무용단 999-5301



전통과 창작을 망라해 매번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왔던 정신혜무용단의 우리춤 재발견 시리즈Ⅳ '세상을 춤추다' 두 번째 무대. '시리즈 I - 춤. 사계(四季)', '시리즈 II - 춤의 풍경(風景)', '시리즈 III - 세상을 춤추다' 등을 통해 전통춤의 재발견과 새로운 시점으로 관객과 만났던 '우리춤 재발견 시리즈'는 관객과 평단의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며 '전통의 고유한 색채와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새로운 양식의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 예술감독, 안무/정신혜
- 대본/장승헌
- 연출/조주현
- 특별출연/이명자(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 이윤석(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예능보유자)

Event 행사

제140회 부산시울림시낭송회 맹문재 시인의 시와 삶

일 시 | 4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문 의 | 천향미 010-7167-0567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4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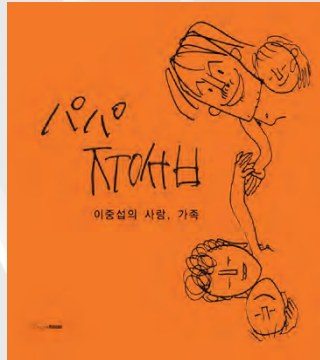
클래식과 재즈 마니아를 위한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4월 무대. 기획 및 진행/손영균, 박형석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7차 사투리 시낭송대회

일 시 | 4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이중섭의 사랑, 가족

최석태, 최혜경 지음 / 디자인하우스 / 196p / 2만원

'나의 살뜰한 사람. 나 혼자만의 기차에 어여쁜 남덕군. 이상하리만큼 당신은 나의 모든 점에 들어맞는 훌륭한 미와 진을 간직한 천사요', '다음에 만나면 당신에게 답례로 별들이 눈을 감고 숨을 죽일 때까지 깊고 긴 키스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해드리지요' 천재화가 이중섭이 일본에 있던 아내에게 보낸 엽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이중섭의 사랑, 가족>은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 거장인 이중섭의 평전이자 서간집이다. 1916년에 태어나 1956년까지 살았던 이중섭은 식민지 백성 피란민으로, 그리고 식민지 주중국 여자와 결혼해 가족을 꾸린 가장이었다. 이중섭 만큼 가족을 많이 그린 화가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 점의 가족 그림이 우리에게 남았다.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했던 그의 그림 속에서 가족은 행복하고 평화롭다. 연애 시절인 1940년 말부터 1943년까지 글 없이 오로지 그림으로만 전한 1백여 남짓 엽서의 일부들과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에 있던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중섭이 보낸 편지 글과 그림이 이 책에 차곡차곡 담겼다. 두 사람과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상징과 기호가 가득한 비밀 연서이자 현재의 우리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이야기다.



❖ 말하지 않는 자의

조해훈 지음 / 푸른별 / 115p / 1만원

1987년 <오늘의 문학> 제2회 신인상으로 등단한 조해훈 시인의 열세 번째 시집. 역사와 한문학을 전공했고, 국제신문에서 20여년 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2013년에 시집 <찰점산>을 엮은 지 일년 여 만에 또 한 권의 시집을 엮었다. 그는 시집후기에서 "이번 시집에 실린 84수의 시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음성등성 연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찌 이 시편들로 한 개인의 1년을 다 정리할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이 혼돈스런 세상에서 한 시인의 정신과 문학의 논리 등을 짚어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고백했다. 말수가 적은, 아니 도대체 언제쯤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 궁금하다 못해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는 자의>라는 시집 제목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표제시 '말하지 않는 자의'의 전문은 이렇다. "말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묵언하는 자의 깊이, 생각을 고요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알디얇은 입만 떠다니는 세상에서/ 한 움큼의 배운 것, 가진 것만 갖고 사는 세상에서". 그가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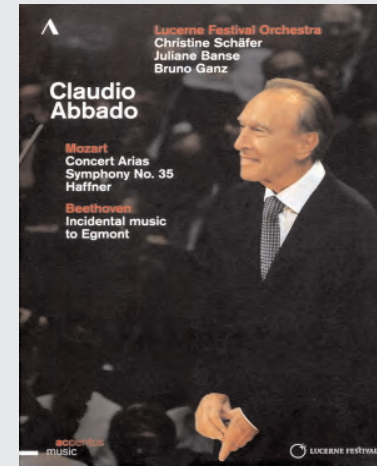


❖ 어느 날 문득, 오키나와

김민재 지음 / 북노마드 / 320p / 1만 4천원

오키나와를 렌터카 없이 여행하려는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한 책. 걷기와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만으로 오키나와를 만끽할 수 있는 5박 6일간의 여행 코스를 담았다. 나하버스터미널, 버스 투어, 모노레일, 자전거 대여소 등의 이용 정보를 함께 전한다. 방문했던 모든 곳에 대한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대신 '5박 6일'로 일정을 추려 재구성해 '솔직한 오키나와'를 담고자 했다. 때문에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별 감흥을 주지 못한 곳들은 일정에서 제외했다. 소개하는 공간들 또한 속도가 느린 뚜벅이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선별했다. 현지인들이 자주 찾아가는 골목길 밥집, 오키나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편집숍, 자전거 산책 코스……. 오전과 오후 일정을 나누어 소개하는 5박 6일 일정은 건너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속도에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 또 뚜벅이 여행의 경우 목적지를 찾아가는 순서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하데, 동선이 꼬이지 않게 재구성한 유기적인 이동 경로가 눈에 띈다. 당신이 정말 오키나와에 간다면, 게다가 렌터카 없이 여행하는 '뚜벅이 여행자'라면 <어느 날 문득, 오키나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New Album... GM뮤직 제공



❖ 클라우디오 아바도 루체른 페스티벌

모차르트 콘서트아리아, 교향곡 35번 '하프너', 베토벤 극부수음악 '에그몬트[한글자막]/크리스티네 새퍼 & 율리아네 반제(sop), 브루노 간츠(narr),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만년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정성껏 빚어낸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걸작들

2014년 1월 20일 81번째 생일을 몇 달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던 우리 시대의 위대한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 거장의 서거 1주년을 기리기 위하여 Accentus에서는 고인이 남겼던 루체른 페스티벌의 미출시 실황 영상들을 최고 사양의 영상물로 출시했다. 정상급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새퍼가 독창을 맡은 모차르트의 콘서트 아리아 3편(KV. 369, 272, 418)과 교향곡 35번 '하프너'는 2011년 실황이며, 고편의 희곡을 바탕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극부수음악 '에그몬트'는 2012년 실황이다. 새퍼의 노련하고도 정교한 가창은 모차르트 아리아들의 화려함을 더욱 빛나게 만들며, 아바도의 군더더기 없는 지휘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뛰어난 개인기량이 멋진 시너지를 드러내는 '하프너' 교향곡의 감동도 각별하다. 리트와 독일 오페라 쪽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소프라노 율리안 반제의 독창과 영화 '몰락'에서 히틀러 역을 열연했던 스위스 출신의 대배우 브루노 간츠의 나레이션은 '에그몬트'의 극적인 감동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낸다. 모차르트의 아리아들과 '에그몬트'에는 한글자막이 지원된다.



❖ 파보 예르비 말러 교향곡 5번, 교향곡 6번[한글자막]

파보 예르비(지휘),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파보 예르비와 HR-신포니가 함께 완성한 말러 교향곡 프로젝트의 제3탄

파보 예르비는 2013/14시즌을 마지막으로 8년 동안 역임했던 HR-신포니오케스트라(구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기에 완성했던 가장 굵직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고품질의 영상물로 등장했다. 예르비와 HR-신포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인가우 무지크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였는데, 그 공연실황들이 C Major를 통해서 차례로 영상물로 출시되고 있다. 세 번째 출시작인 이번 음반은 말러가 '뿔리리 삼부작'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순수 기악 교향곡으로 회귀했던 시절에 완성했던 두 편의 목직한 교향곡들을 함께 담고 있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 사용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아다지에도'를 담고 있는 교향곡 5번과 어마어마한 나무망치의 타격으로 유명한 교향곡 6번 '비극적'이 그것이다. 두 교향곡 모두 에버바흐 수도원에서 연주된 것으로, 교향곡 5번은 2011년, 교향곡 6번은 2013년의 기록이다. 두 교향곡의 핵심 요소들을 설명하는 예르비의 육성해설도 흥미롭다.



❖ 정경화 1973 & 1978 파리공연 실황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Zdenek Macal, Concert de l'Orchester National de la RTF, 1973년 5월 16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Charles Dutoit,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1978년 10월 18일)

전성기의 비르투오조, 정경화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연주!

정경화의 1973년과 1978년 파리 공연실황이 그녀의 승인 아래 세계 최초로 공식 발매되었다. 파리 상젤리제 극장 실황 녹음으로, 시벨리우스 협주곡(1973년 5월 16일)과 차이코프스키 협주곡(1978년 10월 18일) 연주이다. 젊은 나이에 세계무대를 제패하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25세와 30세 때의 귀중한 실황 녹음으로, 흡입을 끝이 거의 없는 완성도 높은 명연의 기록이다. 25세에 연주한 시벨리우스 협주곡은 불멸의 명반으로 평가받는 지네트 느브, 하이페츠, 오이스트라흐의 연주들과 어깨를 견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역시 전성기의 불꽃 튀는 음악적 에너지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음반 발매를 위해, 프랑스 국립관현악단과 국립시창각연구소(INA)에 보관 중이던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를 2014년 11월에 복원하였다.

정경화

NEWS

❖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공원 MOU 체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공원이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3월 12일 부산시민공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산문화회관 박성택 관장과 부산시민공원 박태봉 원장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융성에 기여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공원은 앞으로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을 위해 부산시민공원의 공간을 이용한 야외공연의 활성화, 부산시립예술단의 대외 문화예술교육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5 교향악축제 참가 4월 18일 리 신차오 지휘, 소프라노 황수미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5 교향악 축제'에 참가한다.

1989년 시작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국내 음악가들의 연주 무대 활성화와 국내 순수 창작 레퍼토리 확산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 클래식 축제로, 27회를 맞는 올해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개 교향악단이 참가한 가운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향연을 펼친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날 무대에서 스트리빈스키 '봄의 제전'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주최축에서 추천한 소프라노 황수미의 협연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메타모르포젠 작품 142',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체칠리 p 27-2', 푸치니 오페라 '카르멘' 중 '내 이름은 미미',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나는 꿈속에 살고 싶어요'와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인테르메조'를 들려준다.

이번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소프라노 황수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뮌헨 국립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2012 ARD 국제음악콩쿠르' 성악 여자부문 2위, '2014 Felix Mendelssohn Bartholdy Conservatory competition' 성악 여자부문 2위를 수상한 바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에 앞서 4월 15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509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 4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예술단' 4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4월에는 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내사랑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펼쳐진다.

| 일정 |

- 4월 3일(금) 오전 10:00 부산시청 국제회의장
내사랑 부산공연 '항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출연/합창단)
- 4월 8일(수)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시청 로비 콘서트'(출연/무용단)
- 4월 10일(금)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이우환 Space 개관식 축하공연'(출연/교향악단)
- 4월 15일(수) 오후 4:45 부산문화컨텐츠콤플렉스 5층
내사랑 부산공연 '보육토크 콘서트'(출연/청소년교향악단)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협연자 모집

| 공연개요 |

- 공연명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5,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협연자 모집 개요 |

- 대상 : 전국 중, 고등학교, 대학(대학원 포함)재학 중인 자로 학교장(학 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곡목 : 협주곡(자유곡) 1곡
- 전형위원 : 7명(지휘자, 악장, 응시 파트장) 이내
- 모집부문 : 전파트(관악, 현악, 타악, 성악, 특수악기-생황, 비파, 양금)
- 모집인원 : 6명 이내

| 전형일시 |

- 전형일자 : 2015년 4월 7일(화) 10:00
※전형자는 오디션 당일 09:00까지 대기실에 입실 완료 (추첨)
- 전형장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15년 3월 25일(수)~4월 3일(금) 17:00
※우편접수는 4월 3일(금)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 우편접수자는 겹봉투에 국악관현악단 제41회 청소년 협연의 밤 응시서류라고 기재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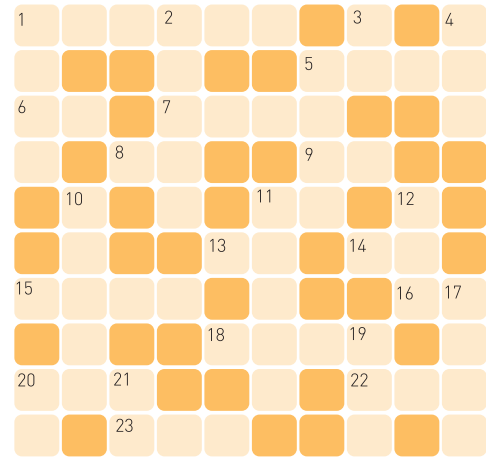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학교장 (학과장) 추천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응시곡목 : 협연곡 (자유곡) 악보 7부 제출
- 프로필 1부

• 합격자 발표 : 2015년 4월 10일(금) 14:00,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4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엘로인 플라워 | 080-337-3370



가로열쇠

- ①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땅에 가게된 소녀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로,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 ② 이탈리아어로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좋은 쿡을 고르고 로스팅하여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소설 '이방인', '페스트', '전락'의 작가이자 좌파적 현실 참여활동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작가. 195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 ④ 트로이아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 ⑤ 인상파의 대표적 화가로 그의 작품 '인상 : 해돋이'로 인해 '인상파'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형태보다 물과 빛, 밝은 녹색의 세계를 순수하면서도 투명한 색채로 나타냈으며, 대표작으로 '수련',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등이 있다.
- ⑥ 제주도의 관광 트레킹 코스로, 큰 길에서 집까지 이르는 골목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⑦ 정조 즉위 1년에 일어난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왕의 암살을 둘러싼 관련 인물들의 엇갈린 운명과 역사 속에 감춰졌던 숨막히는 24시간을 그린 이재규 감독, 현빈 주연의 영화.
- ⑧ 풍물놀이에서 잼이들이 머리에 쓰는 것으로 전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⑨ 몽골과 중국에 걸쳐 있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 몽골어로 '거친 땅'이라는 뜻이다.
- ⑩ 범죄가 행해진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현장부재증명.
- ⑪ 각각 아홉 또는 열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방망이와 공을 사용해 겨루는 구기 종목.
- ⑫ 남과 처자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고사성어로, 맹자(孟子) 이루어낸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했다.
- ⑬ 요르단의 고대 유적. 바위를 깎아 만든, 암벽에 세워진 도시로, 영화 '인디애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등장한다.

- ⑫ 연극이나 음악, 무용, 방송 등에서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하는 연습.
- ⑬ 높낮이에 따라 남자 목소리를 구분한 것으로,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음높이를 가진 목소리.

세로열쇠

- ① 미국 영화계에서 권위있는 영화상으로 전년도에 발표된 미국 영화 및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올해 제87회 시상식에서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가 감독한 '버드맨'이 작품상, 감독상 등 4관왕에 올랐다.
- ② 인형의 마디를 실로 묶어 사람이 위에서 그 실을 조정하여 연출하는 인형극.
- ③ 중국의 대표 여배우. 대표작으로 데뷔작인 '붉은 수수발'과 '귀주 이야기', '패왕별희', '게이샤의 추억', '황후화' 등이 있다.
- ④ 따로 촬영된 화면을 떼어 붙이면서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기법.
- ⑤ 현대 오케스트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줄의 첼현악기.
- ⑥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록.
- ⑦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
- ⑧ 대한민국의 오지여행가이자 작가, 국제구호활동가. 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중국건축문', '1그램의 용기' 등을 발간했다.
- ⑨ 글에 의하지 않고 말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
- ⑩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 ⑪ 남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수도는 리마. 잉카문명과 잉카제국의 발상지로 알려져있다.
- ⑫ 식탐 많고 바보스러운 노란색 애벌레와 성적 급하고 과격한 빨간색 애벌레가 등장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동호(부산진구 가야대로) 박미정(동구 중앙대로) 박민영(수영구 수영성로) 유수진(서구 대신공원로) 한민수(남구 동명로)	큰집 식사권	김태훈(남구 고동골로) 노혜란(해운대구 선수촌로) 박임순(수영구 광안로) 정란(해운대구 선수촌로) 하성민(동래구 동래로)
문학동네 도서	김미자(부산진구 성지로) 이유진(동구 중앙대로) 이운희(연제구 거제대로) 최영호(기장군 정관면) 홍지영(수영구 광남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지수(사하구 시리로) 남영애(동구 진성로) 배연희(사상구 냉정로) 이경미(연제구 법원로) 이민정(해운대구 장산로)
엘로인 플라워 꽃다발 증정권	이은진(부산진구 산천대로) 정미정(동구 중앙대로)	*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두분을 추첨해 꽃다발 증정권을 드립니다.	

지나호 정답

다 른 피 반 아 마 존
 대 가 루 지 기 애 압
 포 와 로 의 혼 불 록
 의 형 제 천 평 강
 춤 걸 왕 별 의 비 행
 추 혼 배 교 이
 는 개 구 음 바 빌 론
 동 인 표 절 계 피
 화 엄 사 기 이 케 아
 동 피 랑 캣 초 노

3월호 퍼즐 당첨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엘로인플라워 꽃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포함/상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 33.6000 하단 | 209.6015 서면 | 606.6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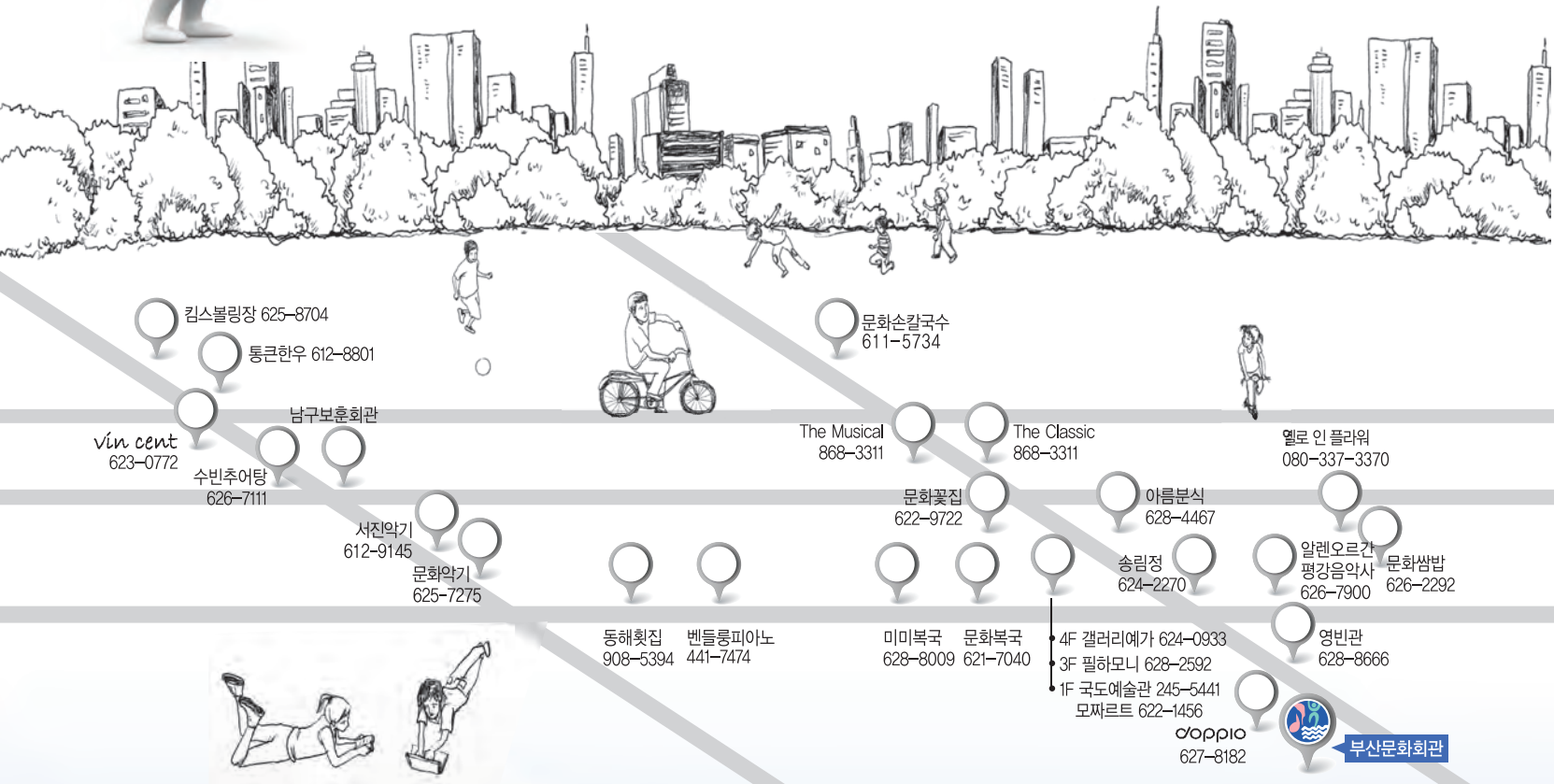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





공연시간에 맞춰 힘드신 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5
4.23 (목)
19:30 PM



창작위촉 음악의 밤



지휘: 김철호



노래: 박성희

노래: 정선희



대금: 손환별

피리: 김정수

지휘

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협연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손환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경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프로그램

1. 창작 성악곡 [을숙도] / 작곡: 김선 - 위촉곡
2. 국악관현악을 위한 대금 협주곡 [화(花).연(淵)] / 작곡: 조원행 - 위촉곡
3. 국악관현악을 위한 피리 협주곡 [푸른 고래의 꿈] / 작곡: 강상구 - 위촉곡
4. 국악관현악 [색향(色香)] / 작곡: 정동희 - 위촉곡
5. 국악관현악 [해운대 뱃놀이] / 작곡: 이지영 - 위촉곡



20 %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 Discount

엘로인플라워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 Discount

연극 '살아보고 결혼하자'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투입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 Discount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투입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 Discount

연극 '발칙한 로맨스'

- 쿠폰소지회원에게 최대 인 2개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투입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65호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팀 (예술가의 초대) 담당자 양

608-811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4월 공연일정

정경호의 부산 2015 April

4

1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누리예 '사조'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여정 '파랑새'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3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누리예 '사조'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5:00	제33회 부산시민연극제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4	14:00	제33회 부산시민연극제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5	17:0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4:00	제33회 부산시민연극제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6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이그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7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8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더블스테이지 '별 헤는 밤'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고도, 없다'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9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더블스테이지 '별 헤는 밤'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0	19:3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1	11:00	송승환의 명작동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5:00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5)
	17:0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맥 '임진왜란'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2	17:0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전설의 박도사를 불러라' 소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7:0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맥 '임진왜란'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3	17:00	제33회 부산연극제-극단 맥 '임진왜란' 중극장 2만원 · 1만 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0:30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소극장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
14	20:00	테너 조윤환 독창회 '달빛이 흐르는 전경' 대극장 5만원 · 2만원 · 1만원/아트뱅크코레아(442-1941)
	19:30	제42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15	19:30	독일가곡연구회 제46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2만원 · 1만원/독일가곡연구회(010-2692-6856)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월일 정산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자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루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기림빌딩 2층
051)626-2592

엘로인플라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꽃 상품 10% 할인
(일부상품 제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화선점 051)627-1254

연극 '말아보고 결혼하자'

3.12(목)-5.17(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규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스티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88-2757

무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4.2(목)-7.5(일) 오후 5:00, 8:00
(월요일, 4/2일, 4/5일, 5/29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규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88-2757

연극 '발칙한 로맨스'

1.9(금)-4.12(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규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양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양극장 1588-2757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4월 공연일정

2015 April 4

- 15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9회 정기연주회 '이고르 스티라빈스카-봄의 제전' 대극장 2만원 · 1만 5천원 ·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54)
19:30 동아대학교 피아노 동문음악회 '비상' 중극장 초대/동아피아노포르테(010-2333-2544)
10:15 극단 키즈샘 '백조왕자와 엘리제 공주' 소극장 규일 5천원/키즈샘(02-6409-6593)
16 19: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대극장 규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47)
19:30 소프라노 구민영 독창회 중극장 규일 2만원/구민영(010-2460-2450)
15:30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소극장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
17 20:00 토마스록, 주윤하 'Good Trip' 소극장 규일 5만원/GOOD TRIP 2015@juyoonha.facebook.com/juyoonha)
18 19:30 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 '부산시민을 위한 관악의 대향연' 대극장 1만원 · 5천원/톤인프리 윈드오케스트라(010-8503-0000)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정기연주회
19:30 중극장 규일 1만원/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70-8265-0776)
16:00 토요일상설무대-한국국악협회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9 19:30 박주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중극장 초대/박주영(010-8667-0562)
17:00 남동우 클래식기타 독주회 소극장 초대/We Music(365-0033)
21 19:30 아나첵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프라하의 봄'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9:30 제26회 경성현악합주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암병원(010-4909-7444)
22 19:30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과 함께하는 봄 대극장 우리아트(920-9545)
19:30 윤진아 오보에 리사이틀 중극장 윤진아(010-6329-7931)
23 19:30 정상급 성악가 초청 '신작 가곡의 밤' 대극장 초대/부산가곡사랑모임(010-3567-3723)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8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음악의 밤' 중극장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43)
19:30 레이비앙상블 정기연주회 소극장 초대/레이비앙상블(010-9841-1006)
24 19:30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한국가곡의 밤' 중극장 규일 1만원/아미티에 성악연구회(010-7767-4390)
25 1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음악 디스커버리-프랑스'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10:00 제6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콘체르토 칸페디션 중극장 부산마루국제음악제(516-8293)
16:00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Open Strings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8 10:30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공연 소극장 크루즈갤러리(주)(02-3789-4564)
30 19:3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 대극장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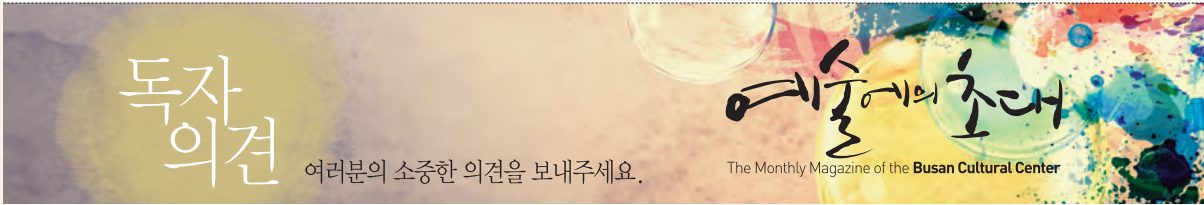
5월 테마여행 신청

보내는 사람

테마여행지 추천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예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Grid for selecting interesting articles, numbered 1 to 23.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